

3월 Market Index

코스피

2432.07

(+4.22)

코스닥

802.42

(+15.23)

금리

3.791

(-0.087)

환율

1301.60

(-14.00)



미래 신사업 주도, 실적 개선... ‘오너3세’ 승계 공고화

주요 그룹 3세 행보 주목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모비스 사내이사 재선임

정기선 현대 HD 사장
신사업 투자로 입지 강화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방산·태양광 등 속속 결실



정의선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기선 사장
현대HD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최성환 사업총괄사장
SK네트웍스

신유열 상무
롯데케미칼

국내 재계에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2세대 경영자들이 그룹의 주력 사업을 이끌어 가는 가운데 자녀들은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에 속속 이름을 올리면서 승계구도를 공고히 해 나가는 모양새다. 3세 경영자들은 그룹의 신사업을 도맡으면서 그룹의 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영 능력을 증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오너 3세’가 경영 일선에 나서는 모습들이 부각될 전망이다. 이달 22일 현대모비스는 주총을 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가 3세로 정주영 창업주의 손자이자 정몽구 명예회장의 외아들이다.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세 아들’의 3세 경영도 눈에 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은 태양광·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을 이끌고 있다. 한화솔루션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그룹 김종희 창업주의 손자이자 김승연 회장의 장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8일 예정된 주총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안을 올릴 예정이다.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금융 사업에 주력하는 중이다.

한화그룹은 또 한화갤러리아를 한화솔루션에 합병된 지 2년 만에 다시 분리했다. 재계에선 한화그룹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갤러리아 부문 전략본부장에게 유통 부문 사업 승계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3세 경영의 핵심은 ‘신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대가 이룬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해당 사업군과 연계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해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정기선 현대HD 사장은 신사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며 경영 체제를 공고히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정기선 사장은 현대가 3세로 정주영 창업주의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다. 이미 차기 총수로 유력하지만, 공격적인 신사업 투자 행보로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사장은 자율운항 시스템과 수소 밸류체인 구축이라는 ‘두 축의 신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그룹 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선박자율운항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아비커스(Avikus)’를 직접 챙기고 있다.

특히 정 사장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았다.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하고 신입사원들과 소통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며 직원

들과 소통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SK네트웍스의 경우는 최성환 사업총괄 사장을 필두로 3세 경영 시대를 알렸다. 최 사장은 SK 최종건 창업주의 차남인 최신헌 전 회장의 장남으로 전기차 충전사업, 블록체인, 미래 신기술 투자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은둔형 오너’로 분류됐던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시게미즈 사토시) 롯데케미칼 상무도 그룹의 신사업인 모빌리티·지속가능성 부문을 담당하며 경영 일선에서 활동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사업의 성공적인 수의 달성으로 ‘오너가 승계 연착륙’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젊은 오너들이 신사업을 안정적으로 끌어나가고, 앞세대와는 다르게 ‘소통 경영’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0+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2일(수)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잇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은퇴 준비 재테크와 부동산 세테크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거시경제 전망과 ‘증시업탐정’, ‘임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주식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호지영 세무사(우리은행)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김동엽 미래에셋상무의 은퇴 준비와 재테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행사명 : 2023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주 제 :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일 시 : 3월 22일(수) 14:00~17:10(VIP 티타임 13:40~14:00)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방 식 : 선착순 현장참가 신청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시진핑 3기’ 성장률 목표 5% 안팎... 역대 최저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중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

안정 우선 속 성장추구 의지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내놓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1월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 제시한 6%를 1%포인트(p) 밑돈다. 골드만삭스(6.5%)나 모건스탠리노(5.7%), 노무라(5.3%) 등글로벌

기관들 전망치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고강도 방역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3.0% 성장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올해는 다소 보수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리 총리는 재

정 적자율 예상치로 GDP의 3%로 제시했다. 지난해 2.8%보다 0.2%p 높다. 2018년 이후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2.6%, 2.8%, 3.6%로 높여오다 2021년 3.2%로 하향 전환했던 것에서 1년 만에 다시 기조가 바뀌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목표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방정부들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는 지난해 3조6500억위안(약 684조 7400억원)에서 올해 3조8000억 위안(약 712조8800억원)으로 늘렸다. 중앙, 지방 정부를 가리지

않고 경기 부양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5.5%였다.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로 지난해 신규 일자리(1200만개, 목표 1100만개를 초과 달성) 수와 같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3% 안팎으로 설정했다.

국방예산은 7.2% 늘린 1조 5537억위안(약 291조4700억원)이다. 지난해 국방예산 증액을 7.1%에서 소폭 늘렸다.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0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하는 등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당, 정부 검찰 출신 중용에 ‘만사검통’ 비판

▲ 이재명,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정부 ‘골든타임’ 대응 강조

/사진 뉴스스

▲ 또 ‘키보드 배틀’ 붙은 홍준표-이준석

▲ 행안부, 100일간 지자체 대상 특별 감찰 실시

▲ 정부, 반지하 침수 등 신종재난 선제 훈련 시작... 연 3회 계획

▲ ‘수박’ 논란 커지는 민주당, 이재명도 자제 요청

/사진 뉴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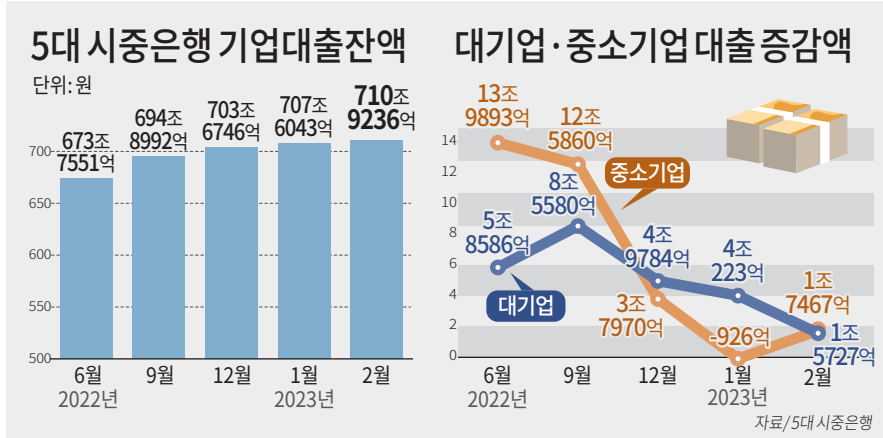
시중은행, 대기업 위주 대출 공급… 中企 자금조달 비상

KB국민 등 5대은행 기업대출 잔액 710.9조로 가계대출 잔액 넘어서

대기업대출 잔액 5.3% 늘었지만 중소기업 잔액은 0.27% 증가 그쳐 “中企 부실증가에 대출증가 감소”

주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710조원을 넘어섰지만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을 위주로 대출을 공급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10조923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잔액(685조4506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2개월 간 기업대출은 7조2489억원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7조829억원 감소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공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늘어나는 기업대출이 주로 대기업에 향하고 있다는 것.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 잔액은 111

조558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4609억원)과 비교해 5.3% 증가했다. 1월 대기업대출은 전달보다 4조223억원, 2월 1조5726억원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99조8678억원으로 같은 기간 0.2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1년마다 신용도를 체크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미달된 기업들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의 부실이 증가해 대출 증가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p) 올랐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체율이 0.04%p 상승한 0.34%를 기록했다. 대출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은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를 넘고, 국내 주요 국고채 금리는 4%에 육박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회사채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1월 신용등급 BBB 이하 등급 회사채 미매각률은 52.5%에 달해 절반을 넘는 수준까지 올랐다.

정해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 대기자금이 확대됐지만 연초만큼의 강한 유입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면서 “국내외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국채 금리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실적 저하에 따른 등급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급 이하 비우량물에 대한 투자는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채에서 직접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비우량 기업들의 은행 대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증가할 수 있다.

박찬우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면서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대기업대출 증가액보다) 더욱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전문가 10명 중 6명 “내년 주택가격 반등”

2023 KB 부동산 보고서

부동산 업계 종사자·전문가 90% “올 주택값 하락… 최대 5% 이상”

2020년 주택 매매량 128만호 기록 작년 51만호로 급감… 회전율 2.7%

청약 위축 ‘미분양 증가 여파’에 자금지원 금융권 리스크 확대 우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내년부터 주택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올해 집값이 5% 안팎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자산가들은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및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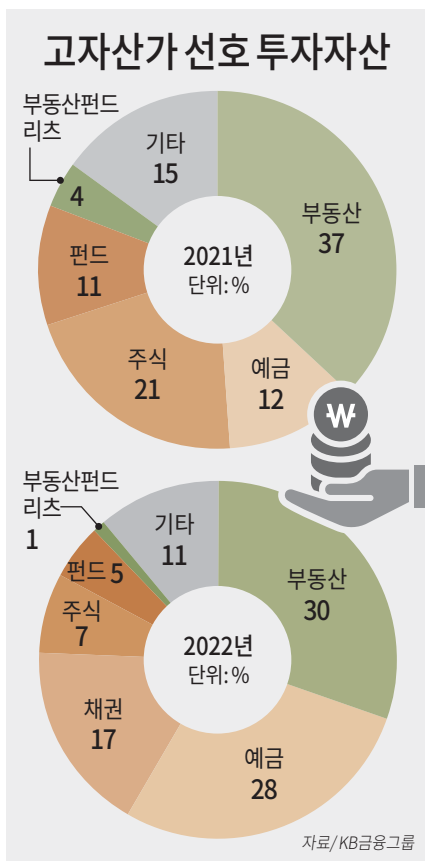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90%는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하락폭은 전문가와 프라이빗뱅크(PB)는 3~5%, 중개업소는 5% 이상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들 중 50~60%는 내년 주택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은 56%, 5개광역시와 기타지방은 47~48%다. 늦어도 2025년에는 주택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규제완화… 거래량 회복가능성 ↑

보고서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매매거래 추이 ▲금리 변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완화 여파 ▲아파트재건축 영향 ▲청약수요 ▲임대시장 ▲주택시장 정책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 2020년 역대 최대치인 128만호를 기록한 이후, 2022년 약 51만호로 급감했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수요가 감소한 영



향이다. 주택회전율도 2020년 7%에서 2022년 2.7%로 떨어졌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의 상환부담은 더해진 상황이다.

주담대 금리는 2020년 8월 2.39%에서 2022년 10월 4.82%, 신용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2.86%에서 7.22%로 2배 이상 올랐다. 현재 주담대 변동금리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PIX, 신규)금리는 2023년 1월 4.29%로 하락세로 전환했고, 고정금리 지표로 쓰이는 금융채 5년물(AAA) 금리도 지난해 10월 5%대에서 올해 1월 4.32%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요구와 함께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요층을 통해 매매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미분양물량, 임대차시장 불안요소

보고서는 청약시장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 여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전체 미분양 물량은

약 6만8000호로, 이 중 82%가 비수도 지역인 대구와 경북에 집중돼 있다. 미분양 물량은 1990년대 주택건설 200만호공급 직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때 10만호를 상회하며 크게 증가했다. 2023년 신규분양물량은 약 28만호로, 미분양이 연간 3~4만호 늘어나 총 10만호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물량이 증가하면 건설사의 자금난이 본격화하면서자금을 지원한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지난해 9월기준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은 약 116조6000억원으로 연 평균 15% 증가했다. 금융위기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상당수가 은행과 저축은행에 몰려 있었다면, 이번에는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가 차지하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불안요소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하반기 전세대출금리가 6%에 이르자 전세수요는 감소하고, 월세수요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월세가격은 전년 대비 7.5% 올랐다. 금리상승과 월세 전환 증가는 임대차시장의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신혼부부, 소득이 낮은 고령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 유망 부동산, 재건축·신축아파트
고액자산가들이 선호하는 투자자산 1위는 여전히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예금(28%), 3위 채권(17%) 순이다.

선호하는 부동산 자산은 아파트(일반아파트+재건축)로 지난해 40%에서 49%로 9%포인트(p) 상승했다.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및 오피스빌딩은 같은기간 55%에서 44%로 11%p 줄었다.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및 오피스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관심은 감소한 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강제징용 피해보상 ‘제3자 변제방식’ 가닥

전경련-게이단렌 합작
과거사 갈등 벗어나 관계회복 도모
미래청년기금 공동조성 운영키로

한국과 일본이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인연합회)을 통한 기금을 공동 조성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활용하고, 향후 제3자 방식으로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사로 인해 지속되는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결단을 통해 한일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함께할 미래를 강조한 점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 소식통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최근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6일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뒤이어 과거 반성이 담긴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양국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을 통

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된 한일 협상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게이단렌을 통한 우회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법적 입장과 충돌할 수 있는 배상이 아닌 한일 간 미래를 위한 사업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확보했다고 해석된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거론돼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발맞춰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밝힌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1998년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韓 AI·DX·6G 등 차세대 기술력 뽐내... 중견·中企 약진

전시회 최대 화두 ‘협업’
8만8500명 이상 관객 몰려
4879억 경제적 효과 추산

2일(현지시각)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에 8만8500명 이상의 관객이 몰려 성황리에 폐막했다.

‘속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MWC는 코로나19가 퍼진 이후 처음으로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됐다. 202국에서 2400여 기업이 참가했다. 전시회를 찾은 방문객은 당초 예상보다 10%가 늘어났다.

행사 주최측은 이번 전시회로 3억 5000만 유로(4879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30여개사 참여... ‘홀3’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 몰려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에 따르면 이번 MWC에는 국내에선 대기업 5개사, 중견·중소기업 60개사, 스타트업 65개사 등 총 130여개사가 참여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에는 MWC에 역대 최대인 201개사가 참여했으나 코로나 이후 전시회가 재개됐지만 참여기업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76개사가 참석하고, 지난해에는 108개사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 130여개사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MWC가 대면행사로 진행되면서 전시회가 열리는 바르셀로나 피라그란 비아에는 참가기업은 물론 수많은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홀3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주로 부스를 마련하는 홀3에는 한국에선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았다.

SKT의 부스에는 개막 첫 날에는 1만 명의 인파가 몰리고, 누적 방문자 수가 5만명을 돌파하는 등 전시 흥행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7일(현지시각)부터 나흘간 열린 MWC23에서 누적 방문객 수가 5만 명 이상을 돌파하는 등 수많은 관람객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SKT의 부스에서는 성장형 AI 서비스인 ‘A.(에이닷)’, AI 반도체인 사파온을 비롯해 UAM(도심항공교통), 인포테인먼트 로봇 등 제품이 전시돼 수천 명의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었다.

또 올해 전시회의 화두는 ‘경쟁’보다는 ‘협업’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업들이 초거대 연결사회에서 단독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기업과 협업을 통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GSMA 이사 자격으로 기조연설에 나서 ‘협업을 위한 시간인가’에 대한 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구 대표는 “5G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 및 가상세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디지털 협업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KT는 이번 전시회에서 모빌리티·자율주행 등 DX(디지털전환) 플랫폼, 로봇 체험을 할 수 있는 DX 기술선도, 금융·미디어 콘텐츠 전시 및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는 DX 영역확장 등 3개의 테마존을 전시했다.

◆화웨이 대규모 전시관, ‘폴더블폰’ 처음 전시해 관심

올해 중국업체인 화웨이는 홀1에 9000㎡에 이르는 대규모 전시관을 마련

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이 전시관 규모는 삼성전자보다 5배 이상 넓은 면적이며, MWC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다.

화웨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폴더블폰을 이번에 처음 전시했다. 지난 5월에 출시한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 스마트폰인 ‘메이트 Xs-2’를 선보였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그동안 중저가 스마트폰을 내세워 영업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전 세계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판매단가가 높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번 MWC에서 폴더블폰 등 초고가 프리미엄 폰이 많이 전시됐다.

SKT 누적 방문자 5만명 돌파
삼성 폴더블폰 체험 인파 몰려
KT 인텔과 ‘와이파이7’ 선포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경쟁사들이 폴더블폰 대열에 합류하는 등 폴더블폰과 플립폰은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삼성이 열어젖힌 가치에 대해 경쟁업체가 인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샤오미는 ‘샤오미13’ 시리즈를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했는데 이 제품의 가격은 180만원에 이른다.

이번 전시회에서 6G와 챗GPT로 관심을 모은 AI 기술과 함께 ‘메타버스’ 서비스도 큰 관심을 받았다.

텔리포니카, 도이체텔레콤, 오랑주, 보다폰 등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은 메타버스 기술이 교육 및 게임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또 화웨이, ZTE, 오포 등 중국 제조사들은 증강현실(AR)이 적용된 스마트글라스 등 메타버스 단말기를 전시했다. 삼성전자도 메타버스 기기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메타버스는 큰 관심을 모았다.

또 반도체업체들은 MWC에서 초연결 기술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초고속 통신에 적절한 반도체 제품들을 전시했다.

인텔은 KT와 공동으로 ‘와이파이7’을 선보였는데, 와이파이7은 IEEE에서 연구 중인 802.11be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와이파이 규격이다. 퀄컴은 화웨이, 모토로라, 닛센, 오포, 비보, 샤오미 등과 협력해 ‘스냅드래곤 새틀라이트’를 활용한 위성통신 지원 스마트폰을 개발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AMD는 이번 전시회에서 5G 통



지난 2일(현지시각)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한 방문객이 폴더블 스마트폰 ‘플렉스S’ 시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신 구축 가속화를 지원하는 무선 솔루션을 선보였다.

◆중견·중기 우수기술 관람객 사로잡아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와 한국관을 공동 운영하며 우수기업 기술 발표회 등을 진행했다. KICTA는 전시관 7홀 중앙에 대형부스를 설치하고 국내 중소 통신장비 기업 17개사가 참여한 ‘코리아 우수 통신장비 종합홍보전’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 전시장에서는 한국 우수 중소기업의 통신장비를 한데 모아 전시함으로써 3000여명이 방문하는 효과를 거뒀다.

KICTA는 또한 유럽 바이어연맹 ‘E EN’과 함께 참가기업을 매칭시켜 글로벌 통신사에 유통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한국의 우수 통신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단체 관람객이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MWC에서 아쉬운 점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신기술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숲
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
조식숲과 초식마루

길
한강의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군에서 8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길

메
영양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군에서 8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메

빛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려면
영양군에서 8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빛

엔
한강의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군에서 8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엔

맛
한강의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군에서 8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맛

심
한강의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군에서 8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심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해계곡, 본신계곡, 천벽공원, 축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반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홍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中 소비자, 韓 상품 부정평가 ↑… 구매경험 79%→43%

(2020년)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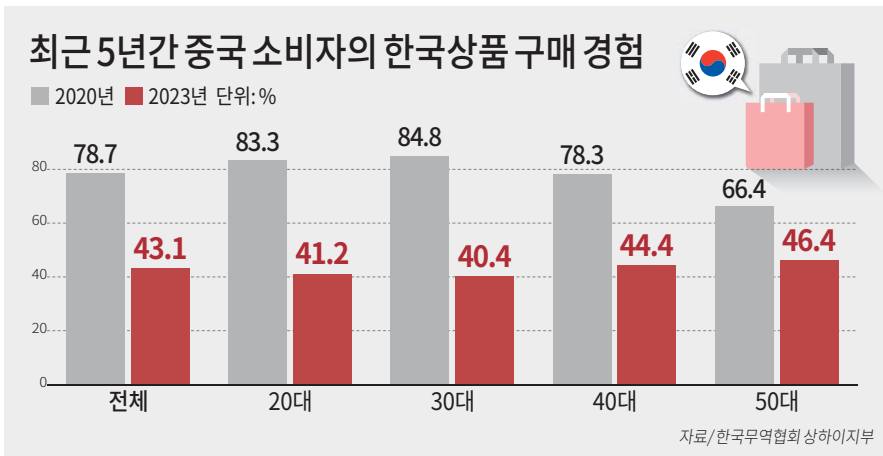
무협 코로나 이후 시장 분위기 급변
상품 후기·국가 이미지 등 영향
“韓 제품, 달라진 트렌드 부응 못 해
가격 이원화 등 맞춤형 전략 필요”

최근 5년간 중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 구매 경험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에 대한 부정 평가가 3배 높아졌다. 중국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중국 주요 10대 도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상품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소비자는 54.5%, ‘보통’은 35.5%, ‘부정적’은 10%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초 조사때와 비교하면, 한국 상품 이미지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5%에서 5%포인트 감소



한 반면, 부정 평가는 3.4%에서 6.6% 포인트 증가했다. 부정 평가가 3년 사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내 한국 상품 구매 경험도 2020년 78.7%에서 올해 43.1%로 크게 줄었다. 연령별로 20대(83.3%→41.2%)와 30대(84.8%→40.4%) 젊은층이, 지역별로는 상하이(87%→41.3%), 베이징(87%→40.2%) 등 주요 대도시 거주 소비자의 구매경험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한국 상품은 ▲미용 제품

(58%) ▲식품(55.5%) ▲의류(45.2%)로, 주요 소비재 품목 순위는 2020년과 비교해 바뀌지 않았으나 해당 주력 제품 구매 경험은 각각 2.1%포인트, 9.0%포인트, 0.8%포인트 줄었다.

반면, ▲영유아용품(29.2%) ▲주방용품(19.3%) ▲의료 건강 제품(14.4%) 구입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의료 및 건강제품 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코로나 봉쇄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온라인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중국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식품, 의료건강, 의류, 주방용품 구매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봉쇄로 인한 외출 감소로 인해 응답자의 42.5%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다고 했다.

상품 구매시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는 품질(24.7%), 가성비(16.9%), 브랜드(16.2%) 순이었다. 특히, 20~40대 소비자는 브랜드를 중시하고, 50대 소비자는 가성비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 기간 중 중국 소비 트렌드는 변화했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품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상품 후기(35.9%)’, ‘국가 이미지(34.6%)’, ‘경쟁력 부족(33.6%)’ 순으로 응답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한국 제품의 경쟁력 부족’, ‘번거로운 A/S’, ‘불합리한 가격’이라는 답변이 크게 늘었다. 한국 상품 대신 중국 상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58.2%에 달했고, 한국 상품을 대체할 국가로는 유럽(17.3%), 미국

(14%), 일본(10.5%)이 꼽혔다.

무협은 중국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우리 기업의 주력 소비재군을 화장품, 식품 외에도 건강·의료·웰빙 제품과 유아용품, 주방용품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코로나로 양극화된 중국 소비자 공략을 위한 제품 브랜드, 가격 이원화 전략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더우인 등 쇼트 클립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급증하는 만큼, 티몰·타오바오·징둥 등 3대 플랫폼에 집중된 온라인 채널 다각화와 적극적인 상품 구매 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선영 무협 상하이지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중국 시장에 준비된 기업과 상품을 우선 진출시켜 ‘코리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준비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마케팅 플랜을 갖추게 한 후 중국 시장에 진출시키는 두 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경제정책, 물가안정 보다 경기진작 힘 써야”

현대경제연구 불황 장기화 가능성 지적
주요 변수에 G2성장, 금리변화 꼽아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들어가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성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경기 진작’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내놓은 ‘한국 경제의 실속, 높아지는 경착륙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향후 수출 경기 회복과 내수 반등,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이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연착륙과 경착륙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제 지표를 보면 수출의 경우 2월까지 5개월째 감소세다. 1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해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내수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1월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41만 1000명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축소되고 있다.

현대연은 이들 지표를 토대로 부정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고, 정책 대응도 실기해 연중으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핵심 구매력의 원천인 고용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게 현대연의 경고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침체가 더 장기화될 수 있어서다.

현대연은 향후 경기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꼽았다.

다만 주 실장은 “미국, 중국의 경제 상황에 의해 수출 경기 회복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라며 “최근 미중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수출 경기 회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중국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주 실장은 “현재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검색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과거 정책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정책 금리 최종 수준이 결정되면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유동성 검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주 실장은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뒤야 한다”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오이·양파 등 주요 채소가격 폭등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양파가 진열돼 있다. 오이·양파·대파·애호박 등 주요 채소도 매가 가격이 난방비 상승과 학교 개학에 맞물려 재차 폭등했다.

/뉴시스

실버게이트 쇼크에 비트코인 2.2만弗 횡보

업계, FTX 사태 재현 우려

암호화폐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탈의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위기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2만 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FTX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5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실버게이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회사의 사업 및 재무 상태에 대한 포괄적 개요를 담은 연례 보고서인 ‘10-K’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버게이트는 10-K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2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버게이트는 FTX 파산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10억 달러(약 1조 30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고객 예금은 140억 달러(약 18조원)나 감소했고, 지난 1월에도 43억 달러(약 5조 5986억원)를 대출받아 채무증권 52억 달러(약 6조 7704억원) 규모를 매각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다.

실버게이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은 2만 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한때 2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3000달러 하락한 수치다.

지난 2일에는 비트코인이 5% 급락하면서 추가하락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를 연속 2만 2000달러 선을 사수하고 있어 실버게이트발 여파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버게이트 위기는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개인투자자들이 아닌 기관투자자들과 주로 거래해 왔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J. 오스틴 캠벨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영업 종료 후 발표를 기다리면(은행 계좌에) 돈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다행인 것은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이미 실버게이트와의 관계를 끊고 자금을 이동해 적어도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20~30대 근로자 절반 “시간-성과 비례하지 않아”

전경련 근로시간 인식 조사
응답자 57% “현행 제도 부적합”

20~30대 근로자 절반 정도가 근로시간과 업무성과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자율의 근로시간유연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임금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4.9%는 근로시간과 업무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특히 ‘영업직’(50.3%), ‘IT·SW 등 연구개발직’(48.2%) 등에서 이 같은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68.1%는 전 직원이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보다 업무량 또는 개인의 업무집중도에 따라 자유롭게 출

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선호유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3%가 ‘필요시 주 3~4일간 몰아서 일하고 주 1~2일 휴무’를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자동화, 기술 융복합 등으로 근로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진 만큼 기존 근로시간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우수상
에브리틱 팀 윤준성 김용운 양정구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창업 지원도 취업 지원도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ESG 캠페인

.....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전국 협력 대학이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차별 없는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민주당, 수박색출 작업 등 ‘총체적 난국’… 출구전략 고심

〈민주당 내 보수인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됐지만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능성 농후

지지율 하락, 내년 총선 패배 우려
비대위 체제 전환 등 목소리도

총체적 난국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누누이 지적받았던 ‘사법리스크’ 현실이 됐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됐으나, 대거 민주당 이탈표가 나오며 후폭풍을 일으켰다. 비(非)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쌍방울 대부송금 의혹,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하고 있어 추가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극성 지지층은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박(민주당 내 보수 인사) 색출 작업’에 들어가면서 내부 갈등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계기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이다. /뉴시스

증폭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직을 맡은 친명계 의원실에 들러 “개딸(개혁의딸·친이재명계 지지자)들에게 문자 좀 보내지 말라고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까지 출석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당의 위기로 비춰져 지지율 하락과 내년에 있는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2022년 대선과 지선까지 대항선거에서 연전연패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되

기 전까지 여론의 흐름을 뒤집을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았다.

만약,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출석하고 있는 재판 1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다면 검찰에 타격을 주고 숨 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재판 중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꼽힌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사 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탄압 등 부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고 이에 당의 내분이 커지면 당헌 80조의 적용 잣대도 달라질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경우, 총선

을 앞두고 당의 내분을 증폭할 수 있는 인사보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형’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가 계속 임기를 이어가면서 중도층을 확장전략을 쓰는 길도 걸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77.77%를 득표해 민주당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당 대표가 됐다. 그만큼 지지층이 견고하다는 의미다.

또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 검찰에 대한 반감도 팽배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매일 언론에서 검찰발 보도만 나오는데, 무엇이 실제적 진실인지 모르겠다. 피의사실공표는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을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며 대정부·대여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前대 흥행… 높은 투표율 ‘아전인수’ 해석

투표 첫 날 47% ‘역대최대 투표율’

김기현 “尹 정부 성공위한 강한 의지”
안철수 “당대표, 12일에 확정돼야”
천하람 “윤핵관들의 심판 투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높은 투표율에 관심을 보였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다. 투표 결과에 따라 과반 득표로 당선되거나 결선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당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5일 전당대회 투표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합작이라도 한 것처럼 전당대회를 진흥당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한 데 대한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김기현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YPT 청년정책 콘테스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안정적인 리더십 위에 세워놓을 사람인 김기현을 적극 지지해야 당이 안정 속 개혁을 이룰 수 있겠다고 당원들이 판단하고, 그것이 투표율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될 자신이 있는지 질문에 김 후보는 “1차 과반을 목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투표 첫날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높은 투표율의 원동력은 우리 당이 내부 분란을 끝내고 안정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치단합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라는 당원들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높은 투표율’에 대해 안철수 후보도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YPT 청년정책 콘테스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원들의 속마음이 모인 집단지성이 투표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당원들의 뜻은 네 가지”라며 ▲대선 승리는 대통령과 몇몇 사람들 힘만으로 된 게 아닌 것 ▲대통령실과 몇몇 사람이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는 것 ▲대선에 공인 있는 사람을 내치는 것 ▲총선 승리 목표에 맞는 당 대표 적임자 선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3월 8일이 아닌 12일에 확정돼야 한다. 9일 안철수·김기현 후보 양자 토론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우리 당도 총선 승리를 위해 대표 리스크가 없는 게 필수”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저를 결선투표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천하람 후보 역시 같은 날 경남 창원 마산부림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천하람 태풍”이라고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저희는 개혁세력에게 조직표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모바일 투표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가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젊은 세대, 지금까지 윤핵관(윤석열 대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가짜 주인공행세 할 때의 심판투표라고 본다”고 했다.

천 후보는 높은 투표율로 자신이 안 후보를 제치고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천 후보는 “이번에 안 후보를 꺾고 결선에 진출한다면 지금까지의 천하람 돌풍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천하람 태풍이 돼 김 후보는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윤핵관까지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4~5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39만7805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47.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바일로 투표하지 않은 책임당원은 6~7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ARS 투표로 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발표된다. 다만 당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으면 상위 2명 결선투표에서 승자를 가린다. 결선투표는 3월 10~11일 이틀간 모바일·ARS 투표를 치른 뒤 12일 발표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尹, 美 방문시기·단계 등 매듭 지을 것”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미국 출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사진)이 다음 달 미국을 국민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방문 시기 그리고 방문 단계, 수준 등에 관해서 이번에 가서 매듭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5일 오전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라든지, 학계 인사들을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아젠다 등 다양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드는데 관해 카운터파트 너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지, 미국 외교안보당국자를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보조금 등 경제 현안도 논의하느냐고 묻자 “경제안보 현안, IRA를 비롯해 반도체법들이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 경제안보에 구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며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고 플러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피해자 동의 없이 외교의 또 다른 불씨”

“강제징용 해결책 마련” 일본에
민주당 “尹 대통령 의지 반영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 소송 해결책을 마련하면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를 반성하겠다는 소식에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입장문에서 “정부가 내주 초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성의 있는 호응’ 요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안 하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

제적으로 해법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이 해법의 골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LOTTERIA 

촉촉한
반숙 계란

고소한 참기름
풍미를 더한
고추장 소스

한정
판매

한국의 맛을 버거에 그대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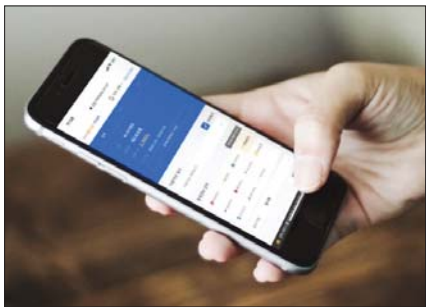
전주비빔
라이스버거

단품 6,900원 세트 8,800원

카드사 통장 나오나… 당국, 비은행 종지업 규제 완화 촉각

〈종합지급결제업〉

업계, 종지업 라이선스 취득면 독자적인 계좌 발급 가능해져 포인트 등 리워드 서비스 강화 될 활성 사용자 확보에도 도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을 막기 위해 비은행 금융사에게 종합지급결제업 허가 방안을 시사했다. /뉴시스

카드업계에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활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등장했다. 그간 카드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출금 계좌개설이 가능한 종지업 진출을 희망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카드 통장’, ‘롯데카드 통장’ 등 비은행 금융사의 계좌가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에 종지업 라이선스 허가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

66.8%로 집계됐다.

카드업계의 종지업 도입은 카드사의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핵심이다. 핀테크사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통장 개설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각각 2014년과 2015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20년 1분기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한 5~6년 만에 카드사의 입지를 위협한 셈이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연동할 필요가 사라진다. 계좌인증과 신분증 촬영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대금결제는 물론 급여이체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금융지주 계열사인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의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한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종지업 라이선스는 계좌 개설권이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다”며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신사업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했다.

카드사가 종지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본격적인 플랫폼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자금이체 등 생활 영역과 밀접한 금융 서비스를 간소화할 수 있어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카드혜택은 물론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여 이른바 ‘락인효과’를 노리게 되는 것.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리워드 서비스’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가 종지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계좌개설권이 생기더라도 여신 전문금융사인 만큼 시중은행과 같은 이자 지급은 불가능하다. 대신 자사 통장

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론 카드사의 인식 개선을 노릴 수 있다. 핀테크사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편의성 강화를 통해 상표 가치를 높인 만큼 카드사를 또한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

이번 논의에 카드업계는 또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종지업 도입을 철회하면서 숙원과제가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종지업 허가 승인이 난다면 플랫폼 강화는 물론 월 활성 사용자(MAU)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주총 앞둔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같이’

당국 지배구조 칼날 속 재편 가속도 신한·우리금융 사외이사 규모 축소 KB, 임기끝난 6명 중 3명 신규추천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KB·신한·하나·우리·NH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자장사 영업 관행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한데 따른 조치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3일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24일 KB금융, 우리금융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하나금융과 NH금융은 주주총회 일정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3월 넷째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사외이사 선임 건이 최대 관심사다. 앞서 금융당국은 1분기 입법예고를 목표로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내부통제 감시와 감독의무를 명문화한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도 경영진의 감시

와 조연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재편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도 상법상 가장 6년(KB금융 5년)까지 대부분 재선임했다. 전문성있는 사외이사를 다양하게 선임해 금융당국의 요구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규모를 12명에서 9명으로 축소한다. 지금까지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는 올 초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이 자진해서 사퇴한 뒤 11명이 있었다. 이 중 10명의 임기만료가 도래한 상황이었는데, 박안순 일본대성상사 회장과 허용학 퍼스트브릿지 전략대표사가 사임하면서 8명의 재선임 안건만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은 86%에서 82%로 감소했다.

우리금융도 사외이사 규모를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한다. 현재 우리금융의 사외이사 7명 중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이사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과 윤수영 키움자산운용대표 등 2명을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로 추천했다. 정찬형 이사는 1년 임기로 재추천했다. 나머지 한자리는 앞서 과점주주 중 한 곳인 한화생명이 지난해 6월 불독딜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분 3.16% 전량을 매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었다.

KB금융은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 6명 중 3명을 신규 추천한다. 2018년부터 이사직을 이어온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등 3명의 이사가 자리에서 떠나고,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상근감사를 추천했다.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주주총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8명의 임기가 이달 완료된다. 다만 이들은 6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가 없어 최대 임기제한에 걸리지 않고 연임이 가능하다.

NH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됐다. 다만, NH농협금융의 경우 이석준 회장이 지난 1월부터 취임해 교체폭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유리 기자 yul115@

유의하세요.

첫째, 내구제대출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용 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상담하여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셋째, 소액·급전이 필요하면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신규 출시(2023년 중)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통된 휴대전화를 불법업자에 제공하면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많게는 수십배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구제대출 불법업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대포폰(선불유심 포함) 제 공행위로 인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형사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환절기 ‘독감·호흡기 질환 치료’ 특약 올바른 이륜차보험 정착 문화 캠페인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가 환절기 유행하는 독감에 대비하기 위해 보장을 강화한다.

◆ 독감부터 창상, 바이러스성 폐렴까지 한 번에

삼성화재는 독감 확산이 늘어나는 3월을 맞아 ‘마이헬스 파트너’와 ‘마이슈퍼스타’에 독감치료비와 호흡기 질환 담보를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 독감 월별 진료환자’에 따르면 3~4월 독감 환자수는 각각 19만6000명, 52만7000명으로 겨울철인 12월 및 1월 다음으로 높다.

‘독감 치료비’ 특약은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진단 1회당 최대 5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초 처방 60일 후에는 재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와 함께 독감 및 바이러스성 폐렴 등의 호흡기 전염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독감 보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7대 호흡계질환 진단비’ 특약은 봄철 진료인원이 급증하는 특정 바이러스성 폐렴, 특정 세균성 폐렴을 비롯해 약관상 규정하는 7대 호흡계질환 진단 시



DB손해보험이 올바른 이륜차보험 가입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한다. /DB손해보험

최초 1회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 정확한 보험 가입 강조…“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DB손해보험은바이크뱅크와협업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보험 가입 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가입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선 보험 가입 식별 스티커를 보급한다. 보험기간 및 차량번호를 함께 기재해 실제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다른 차량에 무단 부착할 소지도 방지하고 있다.

/김정산 기자

휴대폰 이용 ‘내구제대출’ 주의하세요

금감원 Q&A

Q. SNS 광고에서 ‘폰테크’,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 ‘안전한 소액대출’ 등 핸드폰 대출 광고를 봤는데, 합법적인 금융상품이 맞나요?

A.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폰을 매개로 한 채화거래로서, 대부조건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상품

가계대출·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부담 완화

NH농협銀, 0.3%p 우대금리 적용

NH농협은행이 가계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한다.

NH농협은행은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에 일괄 우대금리를 적용해 0.3%포인트(p)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담보대출 우대금리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제외했다.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정 0.6%p, 변동 1.1%p 인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고정 1.1%p, 변동 0.3%p 인하하는 등 3개월 간 잇따른 금리 인하 방침을 지속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원된 취약차주 및 주택담보·전세대출 고객에 더해 가계 신용대출 및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D램값 하락, 美 압박 속 中·日은 추격… K-반도체 사면초가

DDR4 8Gb D램값 다시 하락세
시장 침체로 수요 회복도 더더
국내업체 1분기 큰폭 적자 예상

中·日, 반도체 생태계 육성 속도
‘K칩스법’은 여전히 국회서 낯잠

반도체 업계가 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시장 침체로 ‘역대급’ 적자를 기다리는 상황에 미국 반도체 지원안도 섀범법이 복잡해졌다. 경쟁자인 일본과 중국이 추격에 가속을 붙이면서 위기감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5일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b D램 거래 가격은 1.7달러 중반이다. 지난해 평균고정거래가격이 1.81달러로 전달 수준을 유지했지만, 3월 들어 다시 하락세다.

D램 수요도 좀처럼 회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챗GPT로 서버 확충 등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는 시장 침체와 서버 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 반등 기대감은 또다시 한 풀 꺾였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1분기 큰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이미 지난해 4분기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1분기에는 이보다 2배 가까운 3조원 수준 적자가 예상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지난

4분기 간신히 적자를 면했지만 1분기에는 결국 1조원 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위기 속 투자 계획까지 복잡하게 만들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현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늘리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엄격한 회계 조건은 물론 기술 공유와 중국 투자 금지 등 ‘가드레일’ 조항까지 추가됐다. 현지 정부가 노골적으

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면서 지원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위기는 반도체 생태계 전체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소부장 기업들은 당장 투자 축소로 성장 기회를 놓친데다가, 미국이 대중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수출길도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반도체 시장환경 변화가 국내 반도체 장비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매출액 중 중국 수출 비중이 절반에 가깝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 성장률이 급락했다.

중국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에 129억위안(한화 약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미국 제재가 이어지는 데 대응해 다시 한 번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 것. YMTC는 최근 200만대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중국 반도체 굴기는 양산뿐 아니라 소부장 등 전체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망이다. 미국 제재로 첨단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게된 상황, 장기적으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소부장 역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다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붙이는 분위기다. 수준 높은 소부장 기술을 앞세워 수출 규제 해제를 무기로 외교적인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니 등 8개 기업이 함께 만든 ‘라피더스’도 2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목표로 하는 공장 신설 초읽기에 돌입했다.

그나마 희망은 ‘K칩스법’이지만, 여전히 국회 통과에 어려운 모습이다. 그나마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경쟁국과 다소 낮은 수준인 15%로 상향하는 내용인데, 양당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 세탁기 심장 ‘인버터 DD모터’ 1억대 생산 돌파

25년간 매일 1.2만대 이상 출고
특허만 240여건, 에너지 효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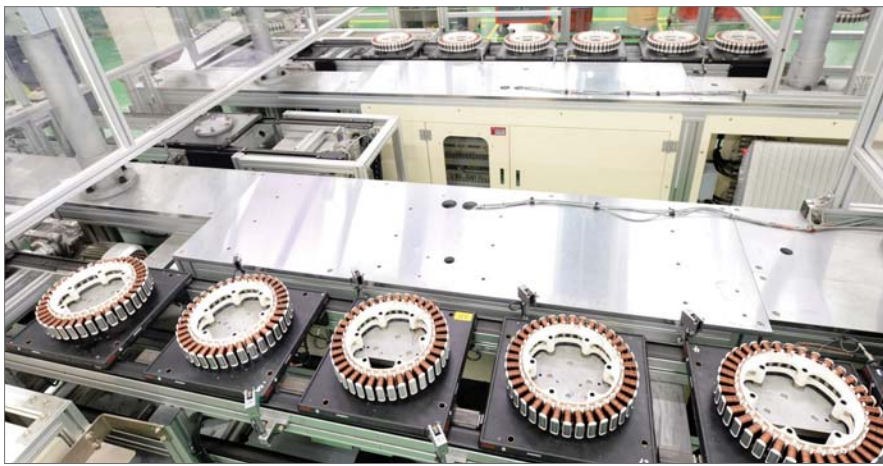
LG전자 기술력의 상징, 인버터 DD모터가 1억대 생산을 넘었다.

LG전자는 지난 2월 말까지 DD모터를 누적 1억1200만대 생산했다고 5일 밝혔다.

1998년 처음 만들기 시작해 25년간 매일 1만2050대 이상 출고했다는 의미다. 2018년초까지 누적 7000만대, 불과 5년여만에 4000만대 이상을 추가 생산하며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DD모터는 세탁기 핵심 부품으로, 높은 성능을 인정받아 판매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모터와 세탁기를 직접 연결해 소음과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탁통과 모터를 연결하는 별도 부품을 없애 구조적으로 단순히 내구성도 높다.

지난해부터는 건조기에도 DD모터



LG전자 DD모터가 생산되는 모습.

를 탑재하고 있다. 모터가 동작하는 속도를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손빨래 동작 등 다양한 세탁 모드를 구현한 ‘6모션’을 건조기에도 구현했다.

DD모터는 4세대에 걸쳐 기술과 성능을 높여왔다. 관련 특허만 국내외서 240여건. 3세대는 모터 코일을 알루미늄으로 변경해 원가 경쟁력을 높였고,

4세대부터는 전기 강판 재질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성과를 거뒀다.

2017년부터는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라인 하나에서 제조하는 완결형 생산체계로 품질과 생산 효율 모두를 제고했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며 UL에 ‘딥러닝 인공지능 검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DD모터 기술력은 에어컨 컴프레서에 탑재하는 인버터 모터와 냉장고 컴프레서에 쓰는 리니어 모터 등에도 적용됐다. 컴프레서 전력 손실 절반 이상이 모터에서 발생하는 만큼, 고효율 기술 개발에 특히 힘을 쏟고 있다. 가장 많이 생산하는 1마력급 인버터 모터는 연평균 3% 이상 에너지 손실을 개선해왔으며, 이를 통해 현재 양산하는 2세대 모터는 초기 모델보다 20% 정도 손실을 줄였다.

LG전자 H&A사업본부 부품솔루션사업부장 김양순 전무는 “차별화된 모터 기술력이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부품 경쟁력을 높이고 ESG 관점에서 제품의 탄소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품 고효율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르노코리아 XM3 E-TECH 하이브리드

르노코리아자동차 AS 서비스 만족도 7년 연속 1위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자사 AS 서비스에 대한 7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달성을 기념해 3월 말까지 특별 고객 감사 행사를 펼친다.

5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행사 기간 중 직영 및 협력 AS서비스센터에 방문한 고객은 캐스트롤 및 유로루브 합성 엔진오일과 엔진 마운팅 부품을 15% 할인된 가격에 교체받을 수 있다. 공식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MY르노코리아 앱 가입 고객은 이들 제품에 대한 할인 폭이 20%로 확대된다.

이번 특별 고객 감사 행사 기간 중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100% 합성엔진 오일 제품들은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아 고온은 물론 저온 환경에서도 차량 시동 시 엔진 보호 효과가 탁월하다.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장거리 및 고속 운행 시에도 엔진 마모 예방 효과가 뛰어나 고객들의 안전 운전을 돕는다. 또 열 산화 안정성이 높아 오일의 변질이 적어 교체 주기가 길어 경제적이다.

르노코리아는 행사 기간 중 할인 제품을 교체하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추가 혜택도 함께 준비했다. 추첨을 통해 르노코리아 신차 1박 2일 시승 혜택(7명), 5만원권 정비할인 쿠폰(7명), 1만원권 정비할인 쿠폰(777명)이 할인 제품 교체 고객에게 제공된다.

정비할인 쿠폰은 MY르노코리아 앱을 통해 행사 종료 후 일괄적으로 증명되며, 신차 시승 혜택은 행사 종료 후 개별 통보된다. /양성운 기자

한화시스템, 한국형 전투기에 ‘AESA레이다’ 탑재

KF-21 시제기 탑재·비행시험
공대공 모드 탐지 등 평가 진행

한화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에 능동형위상배열레이다(AESA레이다)를 탑재해 본격적인 비행 성능 검증에 들어갔다.

5일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회사는 한화 KF-21의 핵심 장비인 AESA레이다를 KF-21시제기에 탑재해 비행시험을 시작했다.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비행시험을 통해 공대공 모드 최대 탐지·추적 거리, 추적 정확도 등 수십개 항목에 대해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작전 운용 성능 충족성, 군 운용 적합

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전 운용 성능이란 무기 체계의 운용 개념을 충족시키는 성능 수준과 능력을 뜻한다. 또 전력화 지원 요소란 무기 체계를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필요한 요소를 의미한다.

앞서 2021년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민간 항공기를 개조한 시험항공기(FTB)에 AESA레이다를 장착해 비행시험을 수행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비행시험을 통해 모든 개발 요구에 대한 기능·성능 검증을 마쳤다. 이를 통해 AESA 레이다가 보유한 다양한 운용 모드의 완성도를 높였다.

한화시스템 어성철 대표는 “한화시스템은 AESA레이다의 국내 개발에 대한 우려속에서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제 1호를 성공적으로 출고하며 레이다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며 “앞으로 남은 국내외 비행시험을 통해 AESA레이다의 요구 성능을 최적화해 한국형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ESA레이다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최첨단 레이다로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및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투기의



한화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한 AESA레이다.

핵심 장비다. 기존 기계식 레이다처럼 안테나의 기계식 회전에 의한 방식과 달리 레이다 전면부에 고정된 1000여개의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빠른 전자파 빔 조향이 가능하다. 이에 넓은 영역의 탐지, 다중 임무 수행,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현대차 등 미래 경쟁력 강화 위해 인재확보 드라이브

삼성, 상반기 신입공채 절차돌입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사업 채용

SK그룹, 하이닉스 중심 수시채용
이노베이션 계열도 내주 채용예고
현대차 10년만에 기술직 신입공채
현대위아, 세 자릿수 대규모 채용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 상황에도 인재 확보를 통한 미래 경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그룹을 비롯해 전자업계와 항공,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채용에 나서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최근 진행한 기술직 채용은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와 실적 부진을 겪은 삼성이 위기 돌파를 위해 인재 확보에 나선다. 삼성은 이번주 2023년도 상반기 신입 공채 일정을 공고하고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 삼성은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 삼성 직무적성검사, 면접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삼성은 올해 구체적인 채용 인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예년 수준에서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채용은 반도체와 바이오는 물론



현대차 기술직 직원이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이 준비하는 미래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은 2년 전부터 대형 M&A를 예고해 온 만큼 올해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미래를 이끌 인공지능(AI)이나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은 물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하우스나 후 공정 업체를 M&A 후보로 점치고 있다.

SK그룹은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상반기 대졸 신입 수시채용에 나선다. 현재 필요 인력 수요를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채용 공고를 내고 모집에 들어간다. 또 SK이노베이션 계열도 내주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LG그룹도 LG전자가 이달 6일 연세대에서 대학생 대상 채용설명회를 시작하며 상반기 수시 채용에 들어선다. 이 설명회는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 한양대, 이대 등을 순회하며 열린다.

앞서 현대차와 포스코그룹도 올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일부터 기술직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이라서 구직자는 물론 일반 직장인들도 관심을 보이면서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이어졌다. 이번 채용은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으로, 차량 전동화 및 제조 기술 혁신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성별 제한은 없다. 서류 접수는 12일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현대위아도 19일까지 연구개발 경력직 채용을 세 자릿수 이상 대규모로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차량 부품, 로봇 및 자율주행(RnA), 방위산업, 안전, 구매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사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포스코그룹도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플로우 4개사는 22일 오후 3시까지 신입사원 공채 서류 접수를 받는다. 모집 분야는 생산기술, 설비기술, 공정기술, 환경, 안전·보건, 재무, 구매, HR, CR·총무, 마케팅 등이다. 온라인 인적성검사(PAT)와 1차 면접(직무역량평가), 2차 면접(가치적합성평가)을 거쳐 6월 중에 합격자를 선발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모집 분야는 영업(국내·해외영업, 사업개발) 직무, 포스코케미칼은 설비기술·생산기술·경영지원·연구개발(R&D) 직무, 포스코플로우는 물류 직무 인재를 뽑는다. 포스코그룹은 봉사활동 경험자, 의인상 수상자와 공모전·창업 경험자, 인공지능(AI)·빅데이터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우대한다.

항공업계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여행수요 회복으로 인력 채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일반직 사원 공채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한 지 3년만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1월, 3년4개월만에, 진에어는 2월, 4년7개월만에 신입 객실승무원을 공개 채용했다. 티웨이항공도 지난해 하반기 신규 채용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객실승무원, 정비, 일반직 등을 공개 모집했다.

수주 훈풍을 맞은 조선업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과 손잡고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HD현대는 올해 상반기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300~400여명의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안으로 인재 채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선업계는 인력 확보를 위해 공개 채용 이외에도 수시 채용을 통한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화시스템 방산부문은 이달 1일까지 신입사원 공채에 돌입한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채용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기업별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韓 데이터 배운 AI, 우리산업에 가장 적합”

네이버 ‘데뷰2023’ 기조연설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X’ 첫 공개
번역 거치지 않고 한국어로 전달
한국어, 챗GPT보다 6500배 잘해

“‘하이퍼클로바X’는 외국 AI와 비교해 한국어에 수천배 능통하고 국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초거대 AI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의 말이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달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연 국내 최대 규모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2023’ 기조연설을 통해 ‘하이퍼클로바X’를 국내에 첫 소개했다.

해당 자리에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하이퍼클로바X는 번역을 거치지 않고도 요약된 결과를 한국어로 잘 보여준다”며 “영어가 약한 이용자들이 한국어로 검색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클로바X를 네이버 지식이나 검색서비스에 접목했을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을 해봐라”고 전했다.

이어 ‘하이퍼클로바X’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 챗봇AI는 96%가 영어로 제공된다. 이에 한국 이용자들이 해외 챗봇 플랫폼인 챗GPT, 빙을 활용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데이터 학습이 부족한 탓이다.

이에 비해 하이퍼클로바X는 글로벌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최근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 행사에서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AI와 비교해 수천 배 수준으로 한국어 활용에 용이하다. 이에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어 국내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파파고 때문이다.

파파고는 2016년 8월 업계 최초로 신경망 기계번역을 적용한 ‘한국어-영어’ 번역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지원 언어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동시 통역 기술을 고도화하는데에도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에 파파고를 접목해 AI가 전체 문맥을 파악 한뒤 단어와 문장의 순서, 의미를 파악한 후 스스로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와 문체로 번역해 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AI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며 “하이퍼클로바X는 이미 한국어 관련 능력 시험에서 경쟁사의 모델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조만간 한국인이 필요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챗봇을 선보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특화시킨 AI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퍼클로바X는 한국 사람처럼 한국의 데이터를 배운 AI라서 한국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답을 잘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와 산업에 가장 적합한 AI기 때문에 국가 상황을 고려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었다.

하이퍼클로바X는 챗GPT보다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했고, GPT-3의 1750억 개보다 많은 2040억 개의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갖췄다.

하이퍼클로바X의 정식 공개 시점은 오는 7월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 유럽서 첨단 의료용 영상기술 소개

유럽영상의학학회 2023 참가

전립선 검사 고통경감 miniER7 등
초음파·엑스레이 혁신 솔루션 주목

삼성전자가 삼성메디슨과 함께 전세계에 의료용 영상 기술을 소개했다.

삼성전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영상의학학회 2023’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은 최근 의료기기 부문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제품의 설계·생산·포장·전시 단계까지 친환경을 고려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이같은 노력의 성과로 초음파와 디지털 엑스레이 등 다양한 영상 기기를 전시했다.

초음파 부문에서는 영상의학과용 프리미엄 진단기기인 ‘RS85 Prestige’와 유럽에 처음 소개하는 ‘V8’과 ‘V7’을



관람객들이 삼성의 다양한 영상 진단 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내세웠다. 종전보다 더욱 선명한 이미지로 의료진들의 정확한 의사결정과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밀진단 기능도 함께했다.

특히 전립선 초음파 검사 시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작은 크기의 프로브 ‘miniER7’과 지방간 진단을 위해 간의 지방량을 백분율로 보여주는 기술이 인기를 끌었다. /김재웅 기자 juk@

LGU+ ‘스포키’, 8일부터 WBC 생중계

‘2023 WBC’ 47개 전경기 서비스

LG유플러스는 통합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가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을 생중계한다고 5일 밝혔다.

스포키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U+ 3.0 플랫폼 사업 전략 일환으로 스포츠 팬들과 디지털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선보인 스포츠 커뮤니티 서비스다. 야

구, 축구, 농구, 골프, 배구, 당구, 볼링, 낚시 등 스포츠 종목별 국내외의 다양한 리그의 최신 뉴스, 인기 유튜브와 방송 영상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스포키에 ‘2023 WBC’를 신설하고 3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WBC의 47개 전경기를 생중계한다. WBC관에서는 경기 일정과 대진표 정보와 지난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한다. /채윤정 기자 echo@

www.veganfesta.com

Vegan Festa

제7회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동시개최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친환경 기술&제품 | 기타

2023.3.17.(금)~19.(일)

SETEC

EXCOM
(주)엑스컴인터내셔널

JB금융 ‘얼라인, 배당금 확대 요구’ 거절… 주총서 표대결

이사회, 오는 30일 정기주총 개최
900원 배당·사외이사 선임 제안에

“전체주주 이익증대 도움 안돼고
사외이사, 검증절차 충분히 거쳐야”

국내 은행지주 중 JB금융지주만 행동주의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에 대해 거절해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얼라인은 국내 7개 은행지주에게 주주환원율을 50% 수준까지 올리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B금융이사회는 오는 30일 정기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배당금 확대 ▲추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얼라인의 주주제안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됐다.

얼라인의 안건은 연간 배당 성향 33%에 해당하는 주당 900원의 결산배당과 김기석 후보자 1인을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JB금융지주 지분 구조〉	
주주명	지분율(%)
삼양사	14.61
얼라인파트너스	14.04
OK저축은행	10.21
국민연금	8.21
더캐피탈그룹	5.11
기타	47.82

얼라인은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을 낮춰 배당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통상 RWA 비중이 감소하면 배당 여력과 직결되는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상승한다. JB금융의 주가가 장기간 저평가돼 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은 순자산가치 대비 0.3배에 불과하다. 대출 성장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이 주주가치 제고에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 자본배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얼라인측의 주장이다.

JB금융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 서류’를 통해 “과도한 배당제안은 재무건전성 유지 및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대비 필요성, 장기적,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필요성, 배당과 주주환원 수준의 안정적 성장 필요성 등을 고려 시 기업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증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거절 의사를 드러냈다.

JB금융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 배당안에 따른 배당 성향은 27.0%로 전년

대비 4.0%포인트(p) 상승한 동종 업계 대비 최고 수준이다.

또 JB금융은 얼라인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얼라인은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 출신 자본시장 전문가인 김기석 크라우드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제출했다. JB금융 측 사외이사 후보자는 유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성제환 익산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동아방송경제법인 파트너 회계사다.

JB금융은 “사외이사의 전문적 정합성과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한 후보 심사 및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얼라인은 “지난 2월 9일까지 JB금융을 제외한 모든 상장 은행이 얼라인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본배치정책과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며 “반면, JB금융 이사회가 실적발표회를 통해 발표한 안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향후

5년 평균 예상 주주환원율은 30%대 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절대적인 주주환원율도 부족해 업계 최하위권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주주제안 목적은 당장 배당 성향을 6%포인트(p) 높이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창출하는 자본배치정책에 대해 경영진과 주주가 함께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JB금융의 최대 주주인 삼양사와 얼라인의 지분율은 큰 차이가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대 주주인 삼양사와 얼라인의 지분율 각 14.61%, 14.04%다.

3대 주주인 OK저축은행(10.21%) 등 주요 주주와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저평가된 지방은행에 단순 투자한 것”이라며 “경영권 참여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외국인도 팔자… 삼성전자 6만원대 ‘박스권’ 테슬라 납품 호재… 코스닥 시총 2위 등극



증권사 목표가 7만~8만원 예상에도
불황지속·외국인 매수 줄어든 영향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7만~8만원대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최근 주가는 6만원대 초반에 갇혀 횡보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데다 올 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49% 내린 6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월 2일 5만5500원이던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1월 27일 6만46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해 지난달 후반 6만원 초반의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6% 오르며 시장 예상치(0.5%)를 웃돌면서 금리 인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커졌다.

여기에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들에 대해 390억달러(약 51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세부 지침에 반도체 업체 생산·연구 시설을 공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다. 1월까지만 해도 매수세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눈 밖에 난 것이다. 외국인은 2월 셋째 주 삼성전자를 226억원 팔아치우면서 주간 기준 8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지난 3일에도 외국인인 삼성전자를 608억원여치를 팔아치웠다.

이같은 외국인들의 매도 움직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6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곧 5만원대까지 밀려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받쳐줄 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를 받쳐줬던 개인투자자들이 7만원대에 몰려 있어 더 이상 삼성전자를 매수할 힘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때에 애플 등 외국업체들처럼 자금이 든든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할 때 오히려 뒷집 지고 있는 점도 주가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올 하반기 올해 메모리 고점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2월 삼성전자 관련 리포트를 낸 17곳 증권사 중 9곳은 목표가로 8만원 이상을 제시하는 등 삼성전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3주째 축소

전주보다 0.24%↓·낙폭 0.02%p
강북구 낙폭 -0.38%서 -0.33%로

최근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3주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의 경우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반영돼 소폭 하락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4%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26%)보다 0.02%포인트(p) 축소되면서 3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대체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동북권에서는 강북구(-0.38%→-0.33%)가 미아동 대단지, 도봉구(-0.36%→-0.28%)는 도봉·쌍문동 대단지, 광진구(-0.38%→-0.37%)가 광장·중곡·자양동 구축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44%→-0.43%)가 방화·가양·염창동, 금천구(-0.

54%→-0.49%)는 시흥·독산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구로구(-0.31%→-0.33%)의 경우 개봉·고척·구로·오류·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동남권에서는 강동구(-0.31%→-0.22%)와 송파구(-0.13%→-0.02%)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하락폭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곳 중 서초구(-0.07%→-0.09%)를 제외한 강남구(-0.22%→-0.14%)와 용산구(-0.23%→-0.19%)는 하락폭이 줄었다.

/김대환 기자 kdh@

metro 관심종목 엘앤에프

테슬라와 3.8조 양극재 공급 계약
증권가서 ‘추가계약’ 가능성 제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업체 ‘엘앤에프’가 테슬라 납품 호재로 최근 코스닥 시장 내 시가총액 순위 2위로 올라섰다.

납품처 다양화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추후 주가 상승 여력까지 충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엘앤에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000원(3.19%) 상승한 25만8500원에 장을 마쳤다. 올해 초 18만원대 중반에서 시작한 주가는 지난 1월말부터 20만 원선을 넘어선 뒤 현재까지 20만원대 중반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와의 3조원이 넘는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엘앤에프는 최근 테슬라와 3조8347억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내년 초부터 2025년까지 2년간 공급하며, 거래액 규모 수준이 지난해 매출액(3조8838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지난달 28일에는 장중 한때 28만5000원선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또한 최근 급등세 속에서 시총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밀어내고 2위(9조3107억원, 3일 기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물량 공급뿐 아니라 추가 공급 계약 체결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통해 자체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물량에 대한 후속 계약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엘앤에프 목표주가〉 /각사

증권사	목표주가
메리츠증권	43만원
미래에셋증권	40만원
DS투자증권	39만원
한국투자·대신·신영증권	38만원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엘앤에프는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주로 텍사스 자체 배터리 물량에 들어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적극 대응을 위해 북미 공장 중심으로 캐파 확대 계획 추진 중인 텍사스 공장 생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2025년까지 테슬라 향 직납 페퍼린스를 확보한 엘앤에프가 2026년 이후에 확대된 추가 물량에 대한 후속 수주 또한 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앤에프가 전망한 2025년 OEM(주문자위탁생산) 비중인 30%를 감안할 때 추가 공급 계약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6년 엘앤에프의 생산능력 가이던스(40만t) 감안시 10만t 이상의 캐파가 OEM 직접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 또는 이외 OEM과 추가적인 공급계약이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전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메리츠증권이 43만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책정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40만원, DS투자증권 39만원, 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신영증권 38만원 등의 순으로 책정하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또한 테슬라 공급으로 고객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매출 의존도 부담을 낮췄다.

/이영석 기자 ysl@

“초대형공기청정기로 세계 공략… 직원 꿈터이자 전진기지”

Q 르포

이지네트웍스 파주공장

‘우리가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

경기파주 월릉에 있는 이지네트웍스의 공장 사무실 2층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 위로는 ‘2025년 매출 1000억원(렌탈 550억 에코버 350억 신사업 100억) 영업이익의 200억’이란 글씨가 적혀 있다.

“처음엔 ‘고객중심’이 우리 회사의 최우선 가치였다. 그런데 경영을 하다보니 ‘직원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직장생활이 행복해야 가정과 사회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원행복을 1순위로 바꿨다. (여기에 있는)우리가 행복해야 결국 고객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지네트웍스 파주공장에서 만난 박관병 대표가 설명했다. ‘사화만사성(社和萬事成)’이 사훈인 셈이다.

이지네트웍스는 지난해 약 2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350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순항하면 코스닥 상장도 충분히 노려볼만하다. 물론 증권시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 직원들의 ‘행복’을 박대표는 최우선적으로 챙길 참이다.

이곳은 박대표를 포함한 이지네트웍스 임직원들의 희망을 키우는 ‘꿈터’이자 ‘전진기지’인 셈이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인 이지네트웍스는 사실상 초대형 공기청정기 시장의 개척자로 정평이 나 있는 회사다.

“국내에서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나누는 기준은 50평(약 165㎡)이다. 대형 제품을 내놔던 대기업도 관련 시장에서



박관병 대표가 대용량 공기청정살균기 에코버를 설명하고 있다.

2000년 종합렌탈회사로 시작해 창업 20년만에 매출 200억 돌파 공청기등 친환경가전사업 확장

이미 철수했고 일부 중소기업만 남아있던 시장이었다. 그러다 우리가 73평형에서 이론적으로 1000평형까지 가능한 대형 공기청정기를 내놓게 됐다. 2018년부터 연구팀을 꾸려 본격 개발에 나서면서다. 본업인 렌탈업에 이어 친환경가전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이지네트웍스는 2000년에 이지렌탈로 시작한 회사다.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사무용가구, 에어컨, 냉장고, 의료기기 등 먹는 것 빼고 다 렌탈을 해주는 종합렌탈 전문 회사로 성장했다. 창업 20년만인 지난 2020년엔 렌탈 매출만 2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대표는 “선거때면 전국 3800여개 투표소에 들어가는 노트북, 단말기 등을 다 우리가 납품한다. 수능 문제 출제를 위해 합숙하는 인원들이 쓰는 각종 물품도 우리 회사가 렌탈한 것들이다. 고양꽃박람회 이동화장실도 납품한다. 깨끗하게 써달라(웃음)”고 말했다.

렌탈사업은수수료장사다보니이익률이 박할 수 밖에 없다.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 유지보수 등에도 손이 많이 간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필요했다. 그것도 아주 뚝뚝한 아이템이면 금상첨화였다. 그러다 눈에 띈 것이 공기청정기, 그것도 초대형 공기청정기였다.

이지네트웍스는 꼭 10년전에 공조기 사업에 발을 들여놨었다. 하지만 쓴맛을 봤다.

강산이 한번 바뀐 뒤 당시 연구팀들이 다시 망쳤다. 그런데 제품을 개발해 다 만들어 놓고나니 판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대용량 공기청정기에 대한 표준이 없어 조달등록을 하지 못했다. 3년 넘게 고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대기업들이 (대형)제품을 만들어 표준이 생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하느냐며 목소리도 높였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 결과우리 때문에 대형 공기청정기 표준이 생겼다. ‘KS9326’ 코드는 그렇게 탄생했다.” 박대표가 결코 짧지 않았던 시간을 되내었다. 이지네트웍스는 2019년 4월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공기청정기 제품으로 정부조달등록에 성공했다.

신사업이 될 운명이었는지 제품을 만들고 조달등록까지 마치고나니 코로나 19가 터졌다.

그는 “에코버(ECOVER) 공기청정



이지네트웍스 파주공장서 대형 필터를 생산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73평~400평형 제품 중심 시장 공략 2025년까지 매출 1000억·상장 목표 日·佛·美 등 수출… 글로벌 기업으로

기는 4단계의 공기 청정·정화장치, 3단계 필터 그리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광촉매 필터, 이온클러스터 기술을 결합한 올인원(All-In-One) 필터 시스템을 통해 냄새와 미세먼지, 각종 유해세균을 99%까지 제거할 수 있다. 여기에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적용해 PC,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 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고 점검할 수 있다”고 제품을 설명했다.

이지네트웍스의 에코버가 공기 청정뿐만 아니라 살균 기능까지 갖춘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넓은 공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대용량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제품을 찾는 곳들이 빠르게 늘었다.

서울메트로(9호선), 부산교통공사(1호선), SRT, 김포골드라인, 한국철도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구로구청(서울), 고양시청, 롯데백화점 노원점, 코엑스 등이 대표적이다.

제품은 73평·120평·240평·340평·400평형 등 다양하게 갖췄다. 이 가운데 73평형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이지네트웍스는 버스형 공기청정 살균기도 잇따라 출시했다. 가정, 사무실 등에 최적화한 소형 제품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버스에 장착하는 제품은 거라처에서 의뢰해 개발을 하게 됐다. 경기지역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KD운송그룹으로부터 지난해 제품 설치를 수주한데 이어 신차에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설치 장소인 버스의 특성상 고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디자인했다.”

신제품으로 나올 가정용은 타사 대비 크기를 35% 가량 줄였고, 3300개의 에어홀을 갖춰 서라운드 공기 청정과 살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서 대용량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개척한 이지네트웍스는 이제 해외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해외에도 대용량 공기청정살균기가 없다. 블루오션이다. 일본에 300대를 수출했고, 프랑스에 있는 군병원에도 납품했다. 태국에 있는 공조회사와는 MOU를 맺었다. 올해 9월 미국 LA에서 열린 한상대회에선 제품을 전시해 알리고 미국 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다음은 글로벌 시장이다.”

/파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글로벌 유니콘 꿈꾸는 ‘아기유니콘’ 키운다

중기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업력 7년 이내 창업 기업 대상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유니콘을 꿈꾸는 ‘아기유니콘’을 발굴한다.

중기부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100억원 미만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기술·사업성 평가, 전문평가단 심층 평가, 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 과정에서 해외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해 가점 등을 부여해 우대한다.

선정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개척 자금 최대 3억원, 특별보증(최대 50억

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글로벌 인재들의 아기유니콘 취업 연계, 현지 대형 플랫폼과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해외 시장진출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과 협업을 통한 동반 진출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추가 지원책으로 아기유니콘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선정기업중기업가치가급성장한 기업을 추가선별해 추가지원하는 ‘아기유니콘+’도 추진해 아기유니콘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을 모두 갖춘 기업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지역 스타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를 거쳐 발표평가에서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의 공동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성장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트랙을 신설하고, 해외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과 아기유니콘이 해당 트랙에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한다.

예비유니콘에게는 민간은행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VC 대상 IR 개최를 통한 투자 유치까지 지원한다.

또한, 예비유니콘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특별 보증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추가대출 및 투자를 연계하는 한편, 사업전환과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등을 위해 M&A에 소요되는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 국민추천제’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보유한 유니콘 후보기업이 있으면 누구나 4월 12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이나 K-유니콘 누리집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전문기관 지정

기술보증기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5일 기보에 따르면 ‘데이터 가치평가’는 데이터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된 평가기법 및 평가모형에 따라 가액·등급·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평가기관은 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가치평가 모형 확보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 ▲업무수행할 수 있는 설비 및 조직 보유 ▲평가정보 수집·관리·유통하는 정보통신망 보유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보는 1995년 ‘발명진흥법’에 의한 특허기술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기술평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탄소 가치평가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

/김승호 기자

벤처協, 예비창업자 100명에 멘토링 등 지원

벤처기업협회가 오는 15일까지 ‘예비창업패키지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5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전반적인 창업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벤처협회는 이번 예비창업패키지 모

집을 통해 총 100명의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사업설명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역삼동 마루180 이벤트홀에서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진행한다. 2차 사업설명회는 10일 오후 2시 유튜브 K OVA-SVI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한우값 급락, 거래감소 등 육우시장 불확실성 지원 나서

육우용 입식농가 마리당 5만원 지원
암컷 제외 수컷 송아지로 제한해
우유·육우자조금 총 1만마리 대상

한우가격 하락 여파로 육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축산농가 육우 입식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축산농가가 젖소 수컷 송아지를 육우용으로 입식하면 우유자조금과 육우자조금을 통해 마리당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젖소 송아지는 성별에 따라 사육하는 농가에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송아지는 미래의 착유에 필요하므로 주로 낙농가가 기르지만, 수컷 송아지는 착유가 불가능해 고기용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



오는 22일 네팔로 운송될 예정인 젖소가 경기도 화성 소재 검역시행장 입소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이유로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젖소와 육우를 함께 기르는 낙농가나 육우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한우와 육우를 함께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기르게 된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대부분 초유떼

기(생후 1주일), 분유떼기(생후 2개월)에 거래되며 낙농가가 송아지를 판매하면 이는 낙농가의 수입으로 잡히며 우유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는 지난해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한 육우가격의 동반 하락과 군급식 공급 감소 등으로 육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감소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을 줄이자 거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또한 하락했다. 나아가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 감소로 인해 낙농가들은 송아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육우산업은 생산기반 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순 생후 2개월 기준 젖소 송아지 산지 가격

은 암컷은 12만2000원, 수컷은 26만원으로, 각각 평년 산지 가격(암컷 46만1000원, 수컷 79만4000원)의 3~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번 입식 지원은 우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암컷 송아지를 제외한 수컷 송아지로 제한했으며 우유자조금이 3월에 5000마리를, 육우자조금이 4월에 5000마리를 총 1만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입식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관할 위탁기관인 지역축협에 지원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한 이후 이력번호 이관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3월 6일부터 1주일이며, 신청량이 적으면 신청서 제출 기간을 연장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올 구직수당 최대 540만원으로 상향

고용부, 지역 특색 맞춰 집중홍보
사회초년생 등 월50만원 6개월지원
70세이상 등 부양가족당 10만원 ↑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청년, 저소득 구직자 등에 주는 구직수당이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한다. 2021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총 7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까지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540만원으로 상향됐다.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에서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생계지원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제공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미성년자(만18세 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 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제공

참여수장 최대 15~25만원 지급
훈련참여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참여 조건

I 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II 유형

특정계층: 소득 무관
18~34세: 소득 무관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공통) 재산 무관

자료/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한도는 월 40만 원이다.

고용부는 이달 홍보기간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제도의 소개, 참여 후기 등을 담은 콘텐츠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노트북 등 상품을 준다.

오는 13~24일 전국 대형마트, 운전면

허시험장 등에서 ‘커피차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온라인에서는 친구추천 이벤트, 초성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전국 고용센터에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춰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대학교 온·오프라인 설명회, 군부대 방문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고용·산재보험 미신고시 300만원 과태료

근로복지공단,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
건설·별목업 보험료신고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지난해 보수총액신고를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목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돼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하며, 보험료 감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반면,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건설·별목 등 고용·산재보험 자진 신고 사업장의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건설·별목업도 이 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공단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우즈벡 수입 가전제품 ‘차별 규제’ 개정 합의… 기업 애로 해소



300억원 규모 가전제품 수출 정상화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갑작스러운 수입 규제에 정부가 즉시 대응해 연간 300억원 규모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 협상을 벌였고, 삼성과 LG전자 등 연간 300억원 규모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고 5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앞서 지난 12월 3일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가 사전 통보는 물론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우즈베키스탄이 발표한 규제 강화 내용은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기존 ‘D등급 이하’에서 ‘B등급 이하’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국표원은 현지 내수 제품의 경우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금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규제가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은 이달 1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양자 협상에 돌입, 우즈베키스탄 측에 수입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

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해당 규제에 대한 개정 절차에 착수했고,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돼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

국표원은 아울러 2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을 방문해 WTO(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중앙사무국으로 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국표원은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 청소년 뉴질랜드 어학연수 재개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제5차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물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협력사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농림수산물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협력사업으로는 농어업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뉴질랜드 어학연수, 농수산 분야 고교·대학 재학생·졸업생 대상 뉴질랜드 직무교육·현장실습, 농수산 분야 공무원 연구 지원 등이 있다.

협력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인원과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대면으

로 진행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협력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의 경우 지난해 뉴질랜드 교사를 국내에 초청해 축소 진행한 반면,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전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뉴질랜드 현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훈련 연수는 뉴질랜드의 농림수산물 야 우수 기관과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고, 전문가 훈련은 동식물위생검역·수산자원관리·산림목재분야의 뉴질랜드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약정이 내년 3월 종료되므로, 향후에도 협력사업의 안정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약정을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Enjoy Your Life



유럽제품 을 안방에서 즐기다

COCOSBAY**NAVER**

코코스베이



포항시, 전문기업 발굴해 ‘수소경제 허브 도시’ 초석 다진다

24일까지 포항 지역 기업 신청
예비 수소 기업에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획득 등 1억원 지원

경북 포항시는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지역 내 우수 수소기업을 발굴·육성해 수소경제 허브 도시로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시는 지역 내 수소 관련 기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수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시와 도가 총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가 수행한다.

이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분야 우수 기술과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포항 소재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산업부에서 인정하는 ‘수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



포항TP 내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사업은 3일부터 24일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포항 지역 기업이 포항TP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지사가 포항에 소재한 수소 기업인면서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1개 사와 20억 미만인 7개 사로 구분해 선정한다.

시는 시제품 제작과 인증, 지적재산권 획득, 전시회 출품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 수소 전문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인증/지적재산권, 전시회 분야에서 최대 1억 원의 기업 지원은 물론 매출액 요건에 따라 산업부 수소

전문기업 확인 신청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기회가 주어진다.

수소 전문기업은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임을 산업부에서 확인받은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수소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및 보조 융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친환경 수소 경제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 수소 경제를 이끌어갈 우수한 수소 기업들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해 산업부 수소 융복합 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 예비타당성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 시험기관인 포항TP내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도 수소연료전지 분야 KS(한국산업표준) 인증 위탁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국토부 수소 도시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수소 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규덕 시 수소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변화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체 에너지로 수소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시도 중·장기적인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해 우수한 수소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수소에너지 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동북댐 가뭄에 메마른 바닥 위기

광주·전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호를 가두고 있는 동북댐이 말라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동북호 상류 제2취수탑 주변은 지난해 11월보다 메마른 모습을 보였다.

동북댐의 저수율은 이날 기준 20.96%를 기록하면서 연일 감소하고 있다. 만일 봄에도 가뭄이 이어질 경우 동북호는 오는 5월 고갈이 예상된다.

/광주=김종식 기자 skjong1@

창원시

시정 참여 청년인재 모집

경남 창원특례시는 6일부터 전문지식 또는 전문경험을 갖춘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를 모집한다.

청년인재풀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정책자문, 서포터즈,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및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전문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만 19~34세 청년으로, 고용·노동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만 39세까지, 기타 농업 분야의 경우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만 50세까지 청년으로 적용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밀양시, 투명페트병 배출 무인회수기 운영

경남 밀양시는 이달부터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운영한다.

시는 배달·택배·1회용품 소비 등의 증가로 페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재활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더욱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자판기 형태의 회수기를 설치했다.

투명페트병 회수기는 아리랑스타트그린도시 사업의 하나로 삼문동 일원(밀양시립도서관, 밀양시보건소, 문화체육회관, 삼문동 파크골프장,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5곳에서 운영 중이다.

투명페트병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되며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수퍼빈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울산 울주군이 지역 대중교통망 개선과 KTX이음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울주군

KTX이음 정차역 방안 착수

울주군, 대중교통 체계 개선 나서 버스노선 개편, 서비스 개선 요구

울산 울주군이 지역 대중교통망 개선과 함께 KTX이음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울주군은 ‘울주군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았다.

앞서 울주군 교통체계는 광역철도 환승 시스템이 미비해 환승시설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증가하면서 버스 노선 개편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과 ‘도심 교통혼잡 완화’, ‘지역 수요

맞춤형 진단’ 등을 목표로 현황 분석과 전략수립을 거쳐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 전략은 ▲지·간선체계 원칙 및 기준 확립 ▲기존 운행 노선 대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대중교통 만족도 및 민원사항 분석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수단의 이동편의수준 분석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한 대중교통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등이다.

용역사는 KTX이음 남창역 미정차시 울주군 남부권 주민의 KTX이음 정차역 이동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돼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통행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고흥군, ‘우수발사체 조립장’ 선정 총력

전남 고흥군은 우수발사체 조립장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형 우주발사체 체계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조립장으로 고흥, 순천, 창원 등 3개 후보지를 놓고 입지를 고려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개 지자체 가운데 기반 구축, 정주 여건, 지자체

지원 등을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흥군민 대다수는 우주발사지구 특화지구로 지정된 고흥이 발사체 조립장으로 선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군민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후보지 평가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주발사체 조립장 고흥군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남도, 항만 관련 공공기관 집적해야

국내 항만 관련 공공기관 및 항만물류업체의 67%는 부산항신항, 진해신항 등 신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을 집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에서 조사한 문기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받은 ‘신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관련 기관·업체의 집적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해운·항만 관련 행정기관·기업의 신항만 집적을 통한 스마트 물류플랫폼 기반 마련과 다양한 항만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고객 중심 항만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전남도, ‘농촌서 살아가기’ 전국 첫 운영

보성 다향울림촌 마을서 시작

전남도가 보성 다향울림촌마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2023 농촌에서 살아가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앞서 추진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를 농림축

산식품부가 벤치마킹해 2021년 신규 추진한 사업이다. 도시민이 농촌에 살아가면서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주민과 상호 소통하며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전국 9개 광역시·도 114개 시·군 130개 마을에서 500여 가구 모집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나주시

초등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전남 나주시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입학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이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10만원권 지류형 또는 모바일 나주시사랑상품권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나주시는 3월 한 달간 초등학교를 통해 직접 신청을 받고 4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물가안정 동참 식품업계 ‘가격 동결’… 외식업계는 ‘줄인상’

풀무원·CJ제일제당, 인상 보류
농심·동원F&B·오뚜기·오리온 등
“비용 늘었지만 당분간 인상 안해”

맘스터치·파파존스 등 프랜차이즈
일부 제품가격·배달비 등 인상

정부의 압박에 식품업계가 상반기 가격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기로 한 반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격을 줄인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식품업계 고위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상반기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풀무원이 당초 3월부터 생수 출고가를 5%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철회했다. CJ제일제당도 가공식품 가격 인상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예정대로라면 원부자재 부담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가쓰오우동, 얼큰우동, 찹쌀떡국떡 등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9.5% 올리기로 했었다. 같은 기간 고추장 등 조미료와 장류 6종 가격을 최대 11.6%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 것 또한 보류하기로 했다.

다른 식품기업들도 상반기 가격인상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농식품부 간담회에 참석한 농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고객이 도시락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심, 동원F&B, 롯데제과,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서식품, 삼양식품, 오뚜기, 오리온, 풀무원, 해태제과, SPC 등 식품기업 모두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과 삼양식품의 경우 지난해 제품 가격을 조정한 바 있으며 오리온도 지난해 9년만에 16개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때문에 추가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를 비롯해 물류, 에너지 등 비용이 일제히 상승해 추가 가격 인상 요인은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낄 부담감을 고려해 당분간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등 주류 회사들도 당분간 주류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원재료, 인건비, 세금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식품회사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낸 오리온, 삼양 등을 제외하면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3~4%대에 불과하다. 매출은 늘었지만, 제반 비용이 크게 늘며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제품에 부과하는 주류세와 관세 등 세금과 공공요금은 인상하면서 기업에는 출고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장원리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주류세는 1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지난해 맥주 주류세가 1당 20.8원 상승한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커진 것이다.

한 소비자는 “정부의 개입으로 물가 부담을 한시름 둘렀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인상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햄버거와 피자 프랜차이즈는 이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먼저, 맘스터치는 오는 7일부터 버거류 가격을 5.7% 올리기로 했다. ‘싸이버거’ 단품은 기존 43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르고, ‘불고기버거’는 기존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된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두 차례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지난해 2월 버거 종류 300원, 치킨 종류 900원 인상을 단행했다. 이후 6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버거 200원, 치킨 1000원, 사이드 메뉴 100~400원 등 가격 인상을 진행했다.

한국파파존스는 지난 2일부터 파스타와 리조토 등 일부 사이드 메뉴와 음

료 가격을 최대 18% 올리고 배달비도 인상했다. 배달비는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가량 올랐다. 다만 피자 가격은 인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앞서 한국파파존스는 지난해 2월 일부 피자 제품 가격을 평균 6.7% 올린 바 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피자를 비롯한 일부 메뉴 가격을 4~5% 인상했다. 프리미엄 피자의 경우 미디엄 사이즈는 5.6%, 라지 사이즈는 4.3% 인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햄버거나 피자 가격이 반년에 한번씩 오르는 것 같다. 가격 인상 주기가 짧아지니 외식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최근 가격인상을 철회한 식품업체들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와는 달리 가맹점주들의 수익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모든 제반 비용이 상승했고, 가맹점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판매가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풀무원, 비건 대중화 ‘플랜튜드’ 2호점 오픈

용산 아이파크몰에 217.85㎡ 규모
총 69석에 모임 가능한 10인룸 마련

환경과 건강에 이로운 채식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풀무원푸드앤컬처가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Plantude)’ 2호점을 오픈하고 비건 대중화에 나선다.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용산점 7층에 217.85㎡ 규모의 플랜튜드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조리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오픈 키친 형태로 총 69석이 마련되며, 1호점 운영 시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족, 직장모임도 가능한 10인룸도 마련했다. 10인룸은 매장으로 전화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앞서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작년 5월 강남구 코엑스몰 지하 1층에 플랜튜드 1호점을 오픈하고 100% 식물성 식재료로 즐길 수 있는 메뉴 13종을 선보여 비건 열풍에 앞장선 바 있다. 2호점은 기존



(좌)풀무원푸드앤컬처는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용산점 7층에 217.85㎡ 규모의 플랜튜드를 오픈했다.

/풀무원푸드앤컬처

1호점과 달리 메뉴 차별화를 통해 MZ 세대부터 가족 단위까지 타깃을 확장해 비건 대중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메뉴는 1호점에서 인기를 끈 메뉴 5종과 2호점에만 만날 수 있는 메뉴 9종 등 총 14종으로 구성됐다.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아이파크몰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메뉴를 마련했다.

플랜튜드의 인기 메뉴를 음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2인 세트와 4인 세트도 준비되어 있어 플랜튜드의 인기 메뉴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플랜튜드 2호점 오픈을 기념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최대 80% ‘패션명품 쓱세일’

S/S 신상 명품재고 확보 총력

SSG닷컴이 역대 최대 물량을 준비해 패션 및 명품에 혜택을 집중한 카테고리 특화 행사를 선보인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공식브랜드관 상품과 디지털 보증서 ‘SSG 개런티’ 적용 명품 등 상품 신뢰도를 앞세워 1월 뷰티, 2월 디지털 가전에 이은 ‘쓱세일’ 흥행몰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SG닷컴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간 패션 및 명품 카테고리 특화 프로모션 ‘패션명품 쓱세일’을 진행한다. 5일 밝혔다. 최대 80% 할인한 봄 스타일링 상품을 소개하고 S/S 신상 명품 재고를 확보해 선보인다.

‘쓱세일’은 쓱닷컴이 라이프스타일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1월부터 정례화한 카테고리 단위 대형 행사다. 특정 카테고리를 지정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인만큼, 관련 자원과 역량을 한 곳에 모아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감 혜택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SSG닷컴은 신뢰도가 중요한 패션 및 명품 카테고리 특성을 고려해 업계 최고 수준의 ‘공식브랜드관’과 명품 디지털 보증서 ‘SSG 개런티’ 서비스, 무작위로 상품을 구매해 정품 여부를 감정하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 등을 운영하며 상품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패션명품 쓱세일’ 행사에서도 신뢰도를 강조해 봄 쇼핑 수요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elle@

롯데온, 뷰티·패션·명품 등 최대 70% ↓

오늘부터 ‘퍼스트먼데이’ 등 행사

롯데온이 6일부터 12일까지 ‘3월 퍼스트먼데이 및 브랜드픽’ 행사를 진행한다. 5일 밝혔다.

다가오는 봄을 맞아 수요가 높아지는 브랜드 및 상품으로 중심으로 행

사를 준비했으며, 6일 퍼스트먼데이 당일에는 롯데온 앱(Ap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쿠폰 및 최대 15%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6일부터 12일까지는 ‘브랜드픽’ 행사를 진행해 패션, 뷰티, 식품, 리빙 등 봄

맞이 인기 브랜드를 단독 혜택으로 선보인다.

먼저, 퍼스트먼데이에서는 봄 나들이 및 신학기 시즌에 맞춰 뷰티, 패션, 명품 등을 최대 70% 할인 혜택으로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봄 맞이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을 위한 ‘에뛰드 순정 클리어런스’를 1만원대에, 설화수 및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인기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세븐일레븐, 물가안정 위한 ‘굿민 세일’

아이스크림·주류 등 중점 기획

세븐일레븐이 봄맞이 ‘굿민 세일’을 진행한다.

‘굿민 세일’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세일 프로모션 프로젝트로, 계속되는 물가 인상에 힘든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굿민 세일 행사는 3월에 편의점의 음료, 아이스크림, 주류 등의 수요가 큰 폭으로 오르는 점에 착안하여 시즌

중점 상품군 중심으로 기획했다.

먼저, 세븐일레븐은 하겐다즈 등 고급아이스크림과 인기 아이스크림에 대해 2+1등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하겐다즈 파인트 7종, 미니컵 7종, 바 7종 등 하겐다즈 21종 전품목에 대해 2+1행사를 진행하고, 해태시모나꿀호떡 등 인기 샌드류 아이스크림 3종에 대해 1+1 행사를 진행한다.

인기 주류에 40여종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세경 기자

위기극복 ‘소방수’ 자처… 美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 총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복귀

그룹 내 상장 3사 선임 안건 의결
신약 개발사로 도약 복귀 과제
신성장동력 확보에 박차 계획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2년만에 돌아온다. 올해 그룹의 중점 과제인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24조원 美 시장 선점 나선다

5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지난 3일 셀트리온은 이사회를 열고 서정진 명예회장을 2년 임기로 셀트리온홀딩스를 비롯해 셀트리온그룹 내 상장 3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서 명예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그룹을 둘러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 ‘소방수’ 역할로 다시 현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2년만에 돌아온다.

그룹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위기 극복과 미래 전략 재정비를 추진중인 현 경영진이 그룹의 창업주인 서 명예회장의 한시적 경영 복귀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상정됐다. 서 명예회장의 복귀

여부는 오는 3월 28일 열리는 각 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셀트리온그룹이 서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를 추진한 배경에는 올해 셀트리온 그룹의 글로벌 점유율 확장에 중요한 기점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글로벌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특허가 만료된다. 휴미라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24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5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폴라이마’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미국 현지 직관 체계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급선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현재 미국 현지 직관 체계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룹측은 서 명예회장이 경영 복귀를 통해 후속바이오시밀러의 신속 출시와 현지 유통망 확보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유럽에선 이미 급속도로 점유율을 넓혀 가고 있는 램시마SC가 지난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거쳐 올해 말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며 “서 명예회장의 리더십이 그룹의 미국 성장 발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현 경영진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약 개발사 면모 갖추다

바이오시밀러를 벗어나 신약 개발사로 도약하는 일도 경영에 복귀하는 서 명예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셀트리온은 2023년을 항체기반 신약파이프라인 및 신규 제형 확보를 통해 신약 개발 회사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제시 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최근 신규 항체치료제, ADC 항암제,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경구형 항체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하는 등 제품 개발 플랫폼 및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데 보폭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글로벌생명공학

연구센터를 준공해 신약 연구 개발 역량에 집중하고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최근 암젠, 화이자 등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 성공 경험이 풍부한 토마스 누스비켈을 미국 법인 최고사업책임자(CCO)로 선임하고 글로벌제약사 출신의 임원급 현지 인력들을 대거 영입해 현지 법인 규모를 50여명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미국 내 직관체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그룹 관계자는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서 명예회장의 빠른 판단과 의사 결정이 절실히 필요해 이번 이사회에서 일시 경영 복귀를 적극 추진한 것”이라면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 이번 선임안이 최종 확정되면 서 명예회장 특유의 리더십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동국제약, 전립선비대증 절반이 ‘방치’

일교차 큰 환절기 배뇨장애 악화↑ 치료 늦을수록 개선 효과 낮아져

40세 이상 남성의 40% 이상이 전립선비대증을 경험하지만 그 중 절반은 이를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배뇨장애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국제약이 2022년 시장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40세 이상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2%가 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12.9%, 50대 46.1%, 60대 67.5%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상 경험률이 높았으며, 평균적으로 3.9번의 배뇨장애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비대증 세부 증상으로는 밤에 자다 일어나 소변을 보는 ‘야뇨’, 소변을 보고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빈뇨’,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가는 ‘세뇨·약뇨’,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절박뇨’ 등이 있다.

전립선비대증 증상자의 62.6%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관리방법에 대한 질문에 2명 중 1명은 단순히 노화 과정으로 생각해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

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립선비대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해지는 진행성 질환임에도 이를 인지하는 비율은 26.6%에 불과했다. 전립선비대증은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요도폐쇄, 방광·신장기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동국제약이 판매하는 ‘카리토폠티’는 독일에서 개발되어 대규모 장기간의 임상연구와 유럽에서의 사용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전립선비대에 의한 야뇨·잔뇨·빈뇨·소변량 감소 등 배뇨장애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준다. /이세경 기자 seilee@



CJ제일제당이 서울 대치동에 개관한 ‘INNO Play’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박민석 식품 COO(Chief Operating Officer,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선호 식품성장추진실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사내벤처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INNO Play’ 개관 사내벤처 육성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조직문화 구축

CJ제일제당이 임직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최초의 전용 공간을 신설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가속화한다. CJ제일제당은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INNO Play’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INNO Play’는 CJ제일제당의 사내벤처 및 혁신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오피스로 서울 대치동에 4개 층 968㎡(약 300평) 규모로 만들어졌다. ‘이노베이션이 365일 플레이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

무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혁신 Hub’의 역할을 하게 된다.

CJ제일제당은 ‘INNO Play’를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혁신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는 식품 사내벤처 프로그램 ‘INNO100’을 거쳐 선발된 5개 팀과 운영팀인 INNO Lab을 비롯해 식품성장추진실 산하 뉴프론티어담당 조직이 입주해 있다. 향후 선발되는 ‘INNO100’ 팀뿐 아니라 바이오 사업부문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R프로젝트’ 팀도 입주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광동제약

‘비타500’잔망루피 어린이들 취향저격

광동제약이 ‘비타500콜라겐’과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캐릭터 ‘잔망루피’의 콜라보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어린이’들을 끌어모으며 이틀만에 품절됐다.

비타500 콜라겐은 마시는 비타500에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성분을 더해 젊은 여성들에게 관심이 높은 제품이다. 비타500 콜라겐에는 평균 300Da(달톤)의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가 함유돼 있다.

비타500 콜라겐 잔망루피 에디션은 지난 2월 광동제약의 F&B 온라인몰 광동상회를 통해 선공개된 후 1차 생산량이 모두 판매됐다. 출시를 앞둔 지 이틀 만이다.

/이세경 기자

현대백 ‘레고 BTS Dynamite’ 팝업 오픈

판교점,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

현대백화점은 오는 6일과 7일 각각 판교점과 더현대 서울에서 레고코리아 주관으로 진행되는 ‘레고 BTS Dynamite’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의 메가 히트곡 ‘Dynamite’의 뮤직비디오를 테마로 꾸며진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신상품 체험부터 레고로 만든 ‘레고 BTS 콘서트 디오라마’ 전시와 레고 미니피겨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더현대 서울에는 1000평 규모의 실내 정원인 5층 사운즈 포레스트 전체에 레고코리아가 운영하는 팝업 공간이 마련된다. 중앙 무대에 설치된 대형



현대백화점이 판교점과 더현대 서울에서 ‘레고 BTS Dynamite’ 팝업스토어를 연다.

/현대백화점그룹

스크린에선 레고로 재해석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와 레고 제품 소개 영상을 선보인다. 무대 앞에는 실제 콘서트장을 모티브로 한 초대형 레고 디오라마를 전시하고, 포토 갤러리도 운영한다.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

에스티팜 반월캠퍼스에 이노베이션센터 준공

에스티팜이 경기도 안산시 반월캠퍼스에 이노베이션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cGMP) 시설 전문 건설사 아벤종합건설이 2022년 1월 착공해 올해 2월 3일 완공한 이노베이션센터는 연면적 5166㎡, 지상 12층으로, 반월공단 인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저탄소제품 인증의 친환경 유리외 E0등급의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 등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

을 적용했으며 총 180억원이 투입됐다.

이노베이션센터 준공을 통해 시화와 반월캠퍼스에 분산돼 있던 합성연구소와 올리고연구소를 통합함으로써 70여명의 석 박사 연구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연구소와 함께 QA 등 품질관리 부서도 입주하여 신속한 원스톱 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기조강연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강연. 1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강연. 2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강연. 3
은퇴 준비와 재테크 전략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2023. 3. 22 (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철저한 방역 하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 축 사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개 회 사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 기조강연 :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교수
- 강 사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100세 플러스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LGU+, 제2회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 7일까지 고객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제2회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구독 ▲'미디어·놀이' ▲성장·케어 ▲신사업 4가지 분야로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면밀한 검토 후 실제 LG유플러스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태광산업, 화섬공장 등 5곳 'ISO 45001' 인증

태광산업이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에 'ISO 45001' 인증을 획득한 곳은 울산 석유1·2·3공장, 울산 화섬공장, 부산 민방공장 등 총 5곳이다. 조진환 태광산업 대표이사(왼쪽)와 임성환 BSI 대표이사가 지난 3일 서울 장충동 본사에서 열린 'ISO 45001' 인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광산업



이마트, 시각장애인 교육용 점자 패드 기부

이마트가 시각장애인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마트는 지난 3일 오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용 점자 패드인 '닷패드' 12개를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촉각 디스플레이 닷패드 전달식'에서 (왼쪽부터) 홍성수 이마트 CSR담당 상무,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이마트

SPC 배스킨라빈스

‘페코 캔디 디스펜서’ 굿즈 선포

SPC 배스킨라빈스가 캐릭터 '페코'와 손잡고 출시한 3월 이달의 맛을 기념해 '페코 캔디 디스펜서'를 굿즈로 선보인다.

'페코 캔디 디스펜서'는 일본 후지야의 유명 연유캔디 브랜드 '밀키(Milky)'의 대표 캐릭터 '페코'와 협업해 탄생한 굿즈다. 디스펜서 안에 사탕을 채워 넣은 후 손잡이를 누르면 사탕이 와르르 쏟아지는 재미를 경험할 수 있고, 상단에 위치한 사랑스러운 표정의 '페코' 캐릭터가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한킴벌리

‘신혼부부 나무심기’ 참가자 모집

유한킴벌리가 오는 4월1일 동해 산불피해지역에서 진행할 '2023 신혼부부 나무심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100쌍을 모집하는 나무심기 참가자는 결혼 3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19일까지 유한킴벌리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사회 리더, 유한킴벌리 임직원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산뜻나무 3000그루를 심고 '줍깅'에 동참한다. /김승호 기자

최태원, ‘민간외교’ 앞장… 엑스포 유치·경제협력 모색

〈SK·대한상의 회장〉

스페인·덴마크·포르투갈 총리 면담 상의, 경험 아젠다 후속조치 계획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포르투갈과 덴마크 총리를 잇따라 만나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상의는 최태원 회장이 지난 3일 포르투갈 리스본 총리공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Antonio Luis Santos da Costa) 포르투갈 총리와 면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포르투갈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교섭 등이 논의됐다.

이번 면담에 한국측은 대통령 특사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조영무 주포르투갈 대사,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홍성화 유치사절단 위원이 참석했고, 포르투갈측은 코스타 총리, 안토니우 조제 다 코스타 실바 경제해양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국과 포르투갈 간 협력 증진과 2030 부산엑스포 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안토니우 코스타(Antonio Luis Santos da Costa) 포르투갈 총리가 악수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최태원 회장은 “포르투갈은 신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량의 54%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인 만큼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기대된다”면서 “향후 한-포르투갈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회장은 “2030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솔루션을 찾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다음 개최국에도 전수해 인류발전과 공동과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포르투갈은 배터리 소재인 리튬이 풍부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가 많아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과 배터리, 반도체, 그린 수소 등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덴마크 코펜하겐을

포스코인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취계약층 자립 지원

태양광 설비 지원 등 인프라 구축 매년 1억5000만원 에너지비용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구 냉·난방 효율개선 ▲태양광 설비 지원 ▲임직원 전기점검 재능봉사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가구 냉·난방 효율개선은 에너지 빈곤층이 밝고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형 사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2년부터 인천 LNG 복합화력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의 노후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 중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들의 모습. /포스코인터내셔널

주택을 중심으로 바닥 난방공사, 보일러와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진행해 총 444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했다.

LNG터미널이 위치한 광양에서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지

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최근까지 '광영사랑 요양원', '진상요양원' 등을 포함해 총 39개 복지시설에 관련 설비와 발전량 모니터링용 컴퓨터를 함께 지원해 노약자와 아이들에게 난방비 걱정 없는 겨울을 제공했다.

또 임직원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이뤄지는 '전기점검 재능봉사'도 냉·난방 효율개선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2년부터 임직원들이 에너지 보급 취약가구를 방문해 전기 안전 점검과 더불어 노후화된 전선 등을 교체해 주는 찾아가는 전기 점검 서비스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상 가구와

방문한 최태원 회장은 같은 날 오후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를 예방하고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형길 주덴마크 대사,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홍성화 유치사절단 위원이 함께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덴마크 기업협회(Dansk Industri : DI) 고위 관계자와 별도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민간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최태원 회장의 이번 유럽 3개국 대통령 특사방문은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등 3개국 총리를 모두 만나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한국의 강한 의지를 전함과 동시에 이들 방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대한상의는 향후 방문국들과의 경제협력 위원회 개최 및 분야별 협력채널 가동을 통해 경험 아젠다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청호나이스

첫 렌탈고객 경품 증정

청호나이스가 봄을 맞아 첫 렌탈 고객들을 대상으로 '처음 만나봄' 이벤트를 진행한다.

5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3월 한 달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청호나이스 제품을 처음 렌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벤트 기간 내 청호나이스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이달 31일까지 렌탈 제품을 처음 구매한 고객 중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청호나이스 진공 블렌더 아이오AIO와 휴대용 공기청정기 울웨이즈 등 다양한 선물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28일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돕는다.

5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칼리파경제지구(KEZAD)와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UAE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진공은 수출 장벽을 허물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총 550㎢)인 칼리파경제지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아부다비 진출을 위한 ▲법인설립 간소화 ▲비자발급 지원 ▲비즈니스 매칭 ▲시장정보 제공 ▲현지 네트워킹 조성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칼리파경제지구는 제조업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왼쪽)이 압둘라 후마이드 알 하멜리 칼리파경제지구 대표와 지난 3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및 칼리파 항구를 통한 종합무역과 물류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기업의 UAE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고용노동부◇파·팀장급 전보 △정보화기획팀장 김재훈 △직업능력평가과장 김동욱 △부산고용센터소장 김상용 △대구고용센터소장 박희경 △청주지청장 김경태 △충주지청장 이점석 △충양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진하 △경기지방법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우동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장급 전보 △디지털소통비서관 이진원 ◇팀장급 파견 △행정안전부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원스톱지원과장) 백승엽

부음

▲김형민씨 별세, 김홍국(전 경기도 해변인씨) 부친상=4일, 서울성모장례식장 5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02-2258-5957

 동아오츠카

스파클링
멀티비타민

오로나민C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비타민B,C 벌꿀 아미노산이
오늘의 생기와 활력을 확실히 올려드립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치약산 벌꿀



레몬 11개분 (300g 기준)
비타민 C



비타민 B₂, B₆



아미노산 함유



인공색소, 보존료
무첨가



비타민 보호 갈색병

우선수익자의 공매절차이행청구권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부동산담보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해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말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부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는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 처분요청권(공매절차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신탁계약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경제사정의 변화나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조속히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 권한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부동산 처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우선

수익자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합571444 판결, 다만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위탁자의 계약위반사실이 인정됐고,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선수익자의 금전채권(피담보채권)을 지급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우선수익자의 금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우선수익자는 처분요청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

위 사건에서 신탁회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위탁자들은 우선수익자의 금전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수익자에게 공매절차이행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은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미정산단계여서 ‘우선수익자의 채권의 발생 여부 및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매절차이행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을 처분요청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처분요청사유로 신탁부동산 담보가치의 훼손·하락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요청권은 신탁부동산의 가치 유지의 취지일 뿐, 공매절차에서 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채권의 현실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위와 같이 우선수익자의 처분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위탁자들은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잔존담보가치 등을 기준으로 차등을 뒤 합리적인 범위로 처분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범위를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우선수익자의 처분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환가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바른

코인원이 쏘아올린 ‘코인 재상장 논의’



이지수첩

이영석 (자본시장부)

앞선 지난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 서류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달 코인원이 위믹스 서비스 재개를 발표했다. 유통량 문제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료된 지 불과 두 달만에 벌어진 일로 업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또한 해당 결정 직후 투자자들로부터는 앞선 상장폐지로 인한 손실에 대한 원망이, 업계에서는 자율 규제 기구인 닥사의 존재 의미에 대한 비판 등 상당한 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코인원의 입장은 명확했다. 앞서 문제가 됐던 유통량 위반, 잘못된 정보 제공, 제출 자료의 오류 등에 대해 위믹스

측에서 문제 해결과 함께 보완책 마련에 성실히 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반적인 상장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믹스의 상장 결정은 타당했으며, 추후에도 문제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도 재상장 논란에 대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시장만 보더라도 퇴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동안의 성과에 따라 거래 재개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며 “가상자산업계는 아직까지 업권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퇴출이 결정되면 이후에 구제방안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도 “앞선 논란과는 별개로 위믹스가 투명성 강화를 위

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라며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을 계기로 향후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 투명성 확보의 일부 기준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을 제기했다. 결국 옥석 가리기를 위한 ‘상폐’는 어쩔 수 없더라도, 개선의 의지가 명확할 경우 이들을 위한 구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특히 법안 마련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이 이 사안을 고려해볼 적기다. 거래소별로 각자가 마련한 기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마련된 객관적 평가 기준이나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 앞선 위믹스 상폐 과정에서든 뜬 소문 속에 시세의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홀더(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었다. 업계 건전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상장 기준 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ysl@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6일 (음 2월 1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꽃이 피면 시들고 달도차면 기울어지니 받아들이다. 48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침은 싫어한다. 60년생 부유할 때 근검하고 가난한 친구에게 자랑 말고 도와주어야. 72년생 종일 마음이 울적하다. 84년생 오전부터 바쁘다.



37년생 사람이 타고난 재주를 다 부리다보면 잔재주가 되기 쉽다. 49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61년생 망설임이 좋은 결과. 73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85년생 우물거에서 송충 찾지 말고 순서대로.



38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50년생 꿈을 얻으려면 벌통을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62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경계망동 하지 마라. 74년생 나를 지켜주는 원동력은 평소 실력이다. 86년생 중심을 잘 잡고 일을 처리.



39년생 항기에 취해서 헛돈을 쓰게 된다. 51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63년생 자력을 과시하고 명예도 얻는다. 75년생 탐구가 끝났으면 협동으로 이제 일을 시작. 87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쉬우니.



40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 52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64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뭉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76년생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친다. 88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41년생 고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 53년생 조급함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행동. 65년생 도덕과 질서를 준수할 것. 77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도 난처. 89년생 공부를 하는 것이 자신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효도가 기본일 것.



42년생 교만하다보면 시작은 있지만 마무리가 없다. 54년생 조상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66년생 여유를 두고 베풀어야 노년이 원만할 것. 78년생 바라기보다 상대를 존중해야 나도 존중 받는다. 90년생 만만치 않은 현실이 슬픔.



43년생 오늘의 영광은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55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마음만 다친다. 67년생 혼자여도 관망은 척 버티보자. 79년생 정든 친구가 먼 길을 떠난다. 91년생 돈은 여러 사람의 협조와 사회가 부자를 만드는 것이다.



44년생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다 쓰지 않고 조금씩 저축을. 56년생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맡는다. 68년생 항상 성실하니 큰 일거리가 들어온다. 80년생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좋은 일이다. 92년생 자라는 시간을 값어치 먹는 기분.



45년생 태양은 항상 그곳에 있으니 희망을 가지자. 57년생 마음만 먹는다면 재기할 수 있다. 69년생 병도 약도 다 하기 나름이니 신중하게 처신. 81년생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93년생 명심보감에서 복을 다하면 몸이 반공해진다했다.



46년생 고쳐야 할 것을 방치한 결과가 나타난다. 58년생 믿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다. 70년생 친구와의 거리를 만족스럽게 성사시킨다. 82년생 나의 성공은 가족의 행복이 원천이다. 94년생 사소한 행동들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니 겸손하게.



47년생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59년생 인생은 하루하루의 생활이 중요하니 건강을 우선시. 71년생 뱀다워의 거래가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83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95년생 사람은 생각을 먹고사니 책을 많이 보도록.

김상회의四季

진도준 퇴기 ①



작년 말쯤에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를 기억할 것이다. 주인공은 이미 한번 인생을 살아봤으므로 어떤 자산이 어느 시점에 빛을 발하는지 꿰뚫고 있었기에 엄청난 수익을 내는 재테크의 귀재로 등극한다. 모두 그러한 선견지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재테크 원칙은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일반 경제학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칙이 있다. 이를테면 거대기업의 회장인 할아버지가 묻는다. 할아버지의 고민을 해결해준 대가로 뭘 줄까 하고 물었더니 손자는 할아버지 소유의 분당 땅을 달라한다.

이에 그 옛날 웅기나 짓던 그 별 볼일 없는 땅이 그리 갖고싶냐고 묻는다. 영특한 손자는 “제가 그 돈을 쓸 만큼 어른이 되면 화폐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땅으로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얘기한다. 그 다음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당지역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박이 나고 이는 향후 투자의 종자돈이 된다. 이후 역시 슈퍼 리치라고 불리는 막대한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 모멘텀이 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소프트뱅크 아마존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여 몇 백 프로의 수익률을 내는가 하면 IMF 외환위기에 대비해 자산을 달러로 바꿔 놓는 등 가치 투자 및 위험 회피수단까지 겸비한 전천후 투자자본가가 된다.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의 대리충족을 느끼게 해주시 드라마라도 드라마 속에 펼쳐진 투자기법만큼은 허구가 아니다. 무엇보다 투자자의 제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화폐는 인플레이를 반영하여 시간이 갈수록 자산가치가 떨어지지만 부동산은 그 크기가 한정되어있고 시간이 갈수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그래서 “땅은 영원하다”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여까지 있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4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7	8			
7				3			2
		9		6		7	
	4						9
			3	5	7		
	3						1
		3		7		4	
4				8			1
			2		5		

				6			
2	5					6	1
	9		8		4		1
	7		1		9		4
				7			
			1	5		6	3
2	5					6	9

정답

9	8	6	9	7	2	8	1	1
1	1	9	8	8	6	9	2	7
8	2	7	1	1	9	8	9	6
9	1	8	2	6	7	1	8	9
7	9	2	1	9	8	1	6	8
6	8	9	1	8	2	7	1	9
8	9	1	7	9	1	6	8	2
2	8	9	6	8	9	7	1	1
6	7	1	8	2	1	9	9	8

7	6	9	1	8	1	9	2	8
9	1	1	8	2	7	9	8	6
2	8	8	9	6	9	1	7	1
8	8	6	2	1	9	7	1	9
9	7	2	6	9	1	8	1	8
1	1	9	7	8	8	2	6	9
1	9	1	8	7	8	6	9	2
8	2	8	9	1	6	1	9	7
6	9	7	1	9	2	8	8	1

과·히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계층 간 입시 이해도 상이… 상위 일수록 고학력 취득 유리

취업 시장에서 ‘고학력자’ 우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계층간 격차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별, 소득 분위별 교육 투자 비율도 다르게 나타나면서 교육 양극화도 깊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저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30년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0~2030’ 보고서를 보면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구조 전망에서 고학력화 심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에서 2030년까지 학력별 생산가능인구의 구조를 보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 인구는 61.2%에서 56.9%로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는 38.8%에서 43.1%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

지역·소득별 교육투자 비율 격차
교육 통한 계층이동 구조 붕괴 조짐

취업시장 고학력자 우위현상 심화
저학력자 경제활동 지속 하락 전망

동참가율 역시 고학력자는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온라인 부문 확대로 2020년 77.0%에서 2030년에는 79.7%로 높아지지만, 저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53.4%에서 2030년에 49.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은 지금까지 계층이동 사다리로 불려왔지만 현재는 그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고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입시 이

해도가 높아지면서 고학력 취득에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취업 시장에서 나타나는 고학력자 선호 현상은 결국 입시로 직결된다.

2019년 공개된 ‘한국사회학’ 제53집 제3호의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사회적 계층 수준에 따른 대학 입시제도 인식 분석’이라는 논문 따르면 계층 의식이 상층일수록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도 독해력에 관한 유의미한 차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입시제도 담론이 상층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하층은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설명이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도 주목된다. 논문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보다 지방에 비해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가 1.38(exp=0.319)배 더 높으며, 이는 입시제도 이해에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을 입증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대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20개 지역에서 전체 입학생의 51.8% 정도가 나온 바 있다.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

이 배출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644명)로 전체 입학 학생의 6.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서울 종로구(5.2%), 서울시 서초구(3.4%) 순으로 집계되면서 유명 학군지의 실재를 방증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유지됐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올해 서울대 정시 결과를 보면 합격생 중 서울시 거주자가 48.5%로 지난해 44.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정시 지역별 합격자 분포가 공개된 2014학년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하는 등 지역별 고른 인재 선발에 노력했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경희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으로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어려울 만큼 지역 간 교육 환경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출산율 향상 위해 ‘결혼·육아 체험센터’ 필요”

‘상상대로 서울’ 저출산 타개책
난자 동결 지원금 등 의견 제시

서울시민들이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난자동결 지원금 지급, 어린이 실내놀이터로 공공기관 시설 개방, 결혼·육아 체험센터 설치 등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타개책이 온라인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구 민주주의의 서울)에 제안됐다.

미혼 여성인 신모 씨는 “출산이 늦어지는 현시점에서는 여성의 가임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자 동결 지원금을 주는 게 좋은 방법일 듯하다”며 “난자 동결 후 시험관 시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산할 수 있는 가임시기 연장을 돕는 게 출산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자동결은 과배란을 유도해 채취한 난자를 영하 210도의 액체질소로 급랭

한 뒤 난자은행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을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난자를 해동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춰 저출산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올해 난자동결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책정했다. 도쿄도는 연간 200~300명의 난자동결 희망자에게 1인당 최대 30만엔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난자동결 시술이 비급여라 미혼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크다.

신 씨는 “결혼 준비를 하다가 출산에 가로막혀서 결혼까지 무산되는 경우를 봐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모 씨는 ▲아파트 고밀화 ▲코로나 19 이후 동네 아이들과의 교류 저조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물가 폭등으로 유아 및 어린이들의 실내놀이터 이용료 고가 책정으로 부모들의 경제력 약화를 이유로 들며 주말과 공휴

일에 공공기관 시설을 유아·어린이 실내 놀이터로 개방해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사설 키즈카페 대비 최소한의 육아 놀이시설 확보로 민간사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윈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신설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사고를 유발시킨 가족들은 실내 놀이터 이용을 최소 3개월간 제한해달라는 아이디어도 덧붙였다.

이모 씨는 결혼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출산율 향상을 위해 개인·사회·국가가 함께하는 시·도별 ‘결혼·육아 체험센터(드로잉베이비)’를 설치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이 씨는 “결혼계획 작성, 아동소품 창작, 가정친화 문화형성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주제로 센터의 공간을 나눠 운영하고 우수작품을 상용화하거나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정 기자

교육부, 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 개통 학교안심글꼴 13서체 개발… 현장 보급

일반국민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저작권 분쟁 고충을 덜고자 학교안심글꼴을 개발해 제공한다. 더불어 교육저작권종합지원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신규 개통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은 학교 현장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촉진과 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의 글꼴(폰트) 관련 고충 해결 등을 해결하고자 누리집을 통해 학교 안심글꼴과 글꼴 점검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저작물 이용 관련 상담 지원 및 다양한 교육저작권 관련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학교현장의안

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교육부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총 2638건의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저작권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등에 발맞춰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저작권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에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글꼴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학교안심글꼴 13서체(24종)를 신규로 개발해 보급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학교 안심글꼴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가 글꼴과 관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국민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심글꼴을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 “2000명 이상 청년구직자, 기업 매칭”

서울시는 올해 ‘청년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이하 창구)에서 2000명 이상의 청년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창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작년 7월에 장교동 청년일자리센터에 문을 연 일자리 지원 시설이다.

시는 연말까지 만 15세~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 모습.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신성장 4차 산업 기반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300명 이상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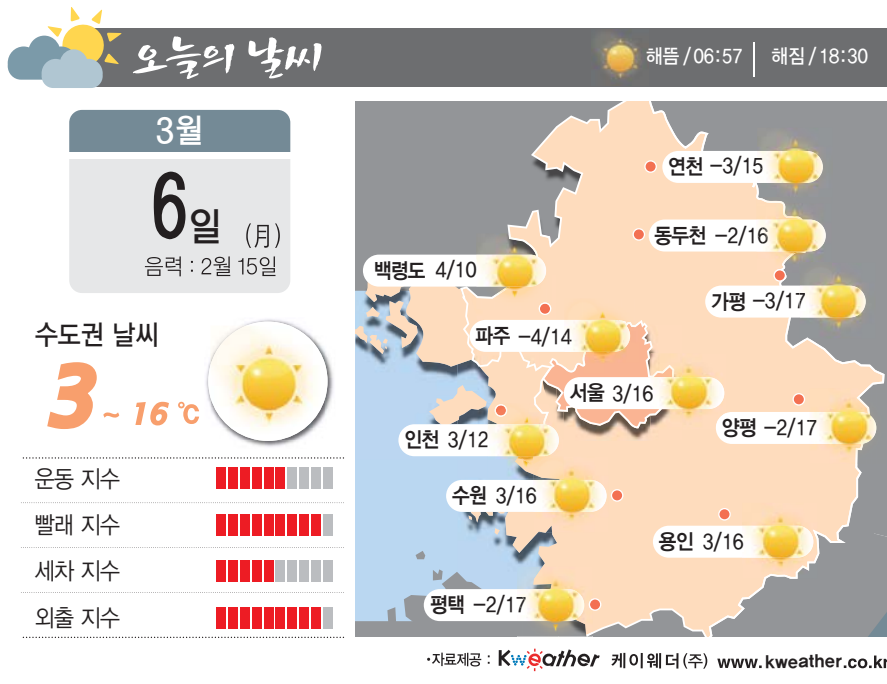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용인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이는 지난해 예산인 455억원보다 7.18% 증가한 규모로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학교급식비(440억원)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47억6500만원)으로 유지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대안학교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경기)=임창교 기자 lckda@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향한 러시아 공세에 방어 중
▲EU, 전쟁 일으킨 러시아 겨냥 국제기소센터 신설 합의

/사진 뉴시스



▲중국, 올해 국방비 7.2% 늘어난 약 300조 편성...경제 성장 5% 목표
▲미국 작가 윌리엄슨, 민주당서 2024 대선 출마 선언...바이든과 경쟁

/사진 뉴시스

▲미국 참담의장, 시리아 방문에 IS 소탕전 현황 확인
▲호주, 미국과 함께 남미서 마약 조직체포...코카인 8800억여치 압수



[금융]
카드사 통장 나오나
비은행 중지업
규제 완화 촉각
08

metro[®]

Life

[라이프]
식품업계 가격동결
위식업계는
줄인상
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탄탄한 사회로 ‘품격 웨딩’ 만들어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웨딩 행사 에이전시 ‘웨아’

문 정 인 대표

“개인의 이미지가 PR이 되는 시대에, 아나운서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블루오션 시장 노렸죠.” 전문 아나운서가 웨딩 행사를 진행하는 에이전시 회사인 ‘웨아(WeA)’ 문정인 대표의 말이다. 2022년에 설립한 웨아는 1년을 갓 넘은 신생 회사임에도, ‘프리미엄 웨딩 전문 사회’라는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해 웨딩 행사 업계서 입지를 굳혔다. 특히 구성원들 모두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들로 대부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차별화로 내세웠다. 공중파 3사 아나운서들은 물론 리포터, 기상캐스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혼식 사회자 업체에는 남자 사회자들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웨아는 남자 사회자뿐 아니라 여자 사회자들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예비신랑·신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웨아는 한 해 평균 300여 건이 넘는 예식을 진행한 데 이어 현재까지 2000건이 넘는 결혼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웨딩업계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웨아는 호텔, 음식점, 웨딩플랫폼, 커뮤니티, 플래너협회 등과의 제휴를 추진하며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평일에는 대표로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주말에는 프리미엄 웨딩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문정인 대표를 만났다.



문정인 대표는 최근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의 일과는 평일부터 주말 모두 새벽 6시부터 시작된다. 최근 “결혼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웨딩 업계가 활황기를 맞으며 프리미엄 웨딩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최근에는 오전 예식부터 저녁 예식까지 빈틈없이 스케줄이 꽉 차 있다”며 “오전 6시부터 일과를 시작하고 이후 하루 2~3건의 예식을 통해 신랑신부들을 만난다”고 말했다.

또 평일은 주말보다 비교적 여유로운 스케줄이지만, 최근 사업 확장을 시작해 오전부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오전에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를 관리하고, 점심식사 후에는 다가올 예식의 시나리오 작성, 신랑신부와 사전미팅을 진행한 다.

문 대표가 웨딩 업계에 발을 담게 된 계기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회를 진행하면서 부터다.

그는 10년 가까이 아나운서직에 재직했다. 각 스포츠 방송사에서 스포츠 캐스터로 활동한 데 이어 아나운서 아카데미 교육팀 교수로 재직 후 아나운서 결혼식 사회 에이전시인 ‘웨아(WeA)’를 설립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10년간 결혼식 및 행사 사회를 진행하며 업계의 흐름을 알게 됐다고 한다.

문 대표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문 아나운서들이 쌓은 경력과 능력에 비해 대우가 턱없이 낮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사업을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아나운서 동료들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에이전시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설립 후 첫달부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웨아의 수익 구조는 행사 사회 비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이후 담당 아나운서에게 수익이 분배되는 구조다.

문 대표는 “설립 후 첫달에 만 60건 이상의 계약이 확정되면서 월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며 “이후 아나운서들을 영입하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져 전국 각지의 아나운서들로부터 러브콜이 먼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무 중에 피소도로 한 집안의 형제, 자매들의 결혼식을 모두 진행하

WeA

Wedding Announcer



웨아 소속 아나운서 구성진.



문정인 웨아 대표가 결혼식 사회를 맡고 있다.

/웨아(WeA)

프리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사회 진행 10년간 경험 바탕으로 에이전시 설립

구성원 모두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프리미엄 웨딩 전문 사회로 차별화

행사·방송분야로 사업 확장하고파 호텔, 웨딩플랫폼 등과 제휴 추진도

게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감정이자 자량은 신랑신부 뿐 아니라 양가의 부모님, 그리고 하객들 모두가 정말 좋아하고 만족하는 사회라는 점”이라며 “이 덕분인지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고 약 2년 뒤 동생이 결혼을 할 때에도 또 연락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막내 남동생이 결혼을 할 때도 연락을 주시게되면서 한 집안의 3남매 결혼식을 모두 진행하게 된 경험이 있다”며 “마지막으로 결혼식 사회를 진행했을 땐 나도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무언가 모를 뭉클함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있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다고 한다. 문 대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발병을

가장 큰 복병으로 꼽았다.

문 대표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웨아의 기획부터 설립 추진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완료했지만, 코로나가 발병해 웨딩산업 전반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웨아의 설립 또한 지연됐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때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보다 더 빨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겠지만,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오히려 웨딩업계에 더 활황기가 찾아와 회사가 급성장하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앞으로 웨아의 사업영역을 웨딩 사회뿐만 아니라 행사 및 방송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그는 최근 전국 호텔, 음식점, 웨딩플랫폼, 커뮤니티, 각 협회들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일반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마치 회사의 복지몰처럼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특별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기획하고 있다”며 “차츰 서울 경기관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해갈 예정이며, 분야별로는 결혼식 사회뿐 아니라 행사 및 방송 분야로도 확장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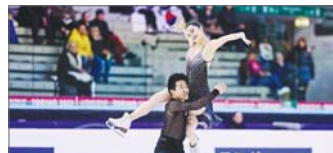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넷플릭스, JMS 성범죄 다룬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공개…소송 기각
▲방탄소년단, 미국 4년 연속 ‘키즈 초이스 어워드’
/사진 뉴시스

▲2023 대구 국제마라톤 4년만에 재개…4월 2일 출발
▲전남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기원 ‘문화재 바로 알기’ 행사



▲‘학폭’ 논란 황영웅,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서 빠져
▲피겨임해나·취안예, 주니어세계선수권 아이스댄스 아시아 첫 금메달
/사진 뉴시스